

## 李 “中企·지방·청년에 골고루 온기 퍼졌으면”

### 10대 그룹 총수 간담회

총수들 “5년간 10개 그룹에서 270조 규모 지방투자 계획 중” 李 “RE100 등 특별법 지방 우선 서울서 면 지역 재정 가중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삼성·현대차그룹·SK·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를 만나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기성 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10대 그룹 총수들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열고 청년 신규 채용과 지방 투자에 대해 “정부 정책들에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하고 기여해주셨지만 조금만 더 마음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또 참석한 기업인들을 향해 ‘수출 사상 최고치’, ‘코스피 5000’, ‘신입사원 공채 확대’ 등을 언급하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많이하게 될 터니 민관이 협력해서 청년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취업 기회를 넓히는 일에도 조금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관념은 수도권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RE100 특별법이나 지방 우선 정책으로,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도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 지원하는 제도를 법

제화할 것”이라며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에너지 가격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에서 부족한 교육 문화 인프라도 훨씬 낫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한 현장 기업의 의견을 기반해 이 건의해달라고 했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5300도 뚫었다  
“6000도 가시권”

코스피지수가 54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시장에선 “이제 곧 코스피 6000선이 가시권”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제 금값은 온스당 4900달러를 돌파하면서, 다시 5000달러대를 넘보고 있다.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7% 급락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에브리씽 랠리(Everything rally)’ 속 되는 자산과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7% 오른 5371.10에 마감했다. 기관이 1조8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사상최고치인 16만9100원에 마감했다.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갈아 치우는 가운데, 선진국과 신흥국 등 47개국 증시 3000종목을 담은 MSCI 세계지수(ACWI)도 연초 이후 3% 가량 상승했다. 최근의 주가 상승이 몇 개 나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코스피 1.57% 오른 5371.10  
외국인·개인 1.7조 순매도  
기관은 1.5조 순매수로 맞서  
美·日 증시 잇따라 사상최대

세계시장에 돈이 넘쳐난 영향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 세계 국경 간 은행 신용이 45조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에 도달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은행들이 각국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대출이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는 의미로, 세계 경제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전통적 안전자산과 신흥 대체자산의 성적표는 정반대로 갈린다. 토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 시간 4일 오전 3시31분 기준 국제 금 현물 가격이 전장보다 5.2% 오른 온스당 4906.82달러를 기록했다. 2008년 11월 이후 최대 일일 상승률이다. 시장에서는 지난주 최고치인 5594.82달러도 다시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연말 금 목표가를 기존 온스당 4900달러에서 5400달러로 올렸다.

비트코인은 한국시간 이날 오후 3시 기준 7만6000달러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마이클 베리는 뉴스레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중요한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막대한 가치 파괴로 이어지는 ‘참담한 시나리오(sickening scenarios)’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폴더블 아이폰 윤곽… 삼성, 차세대 Z시리즈 ‘맞불’

하반기 폴더블 아이폰 출시 힘 실려  
내부 7.8인치, 주름 거의 안보일 듯  
삼성, Z플립·Z폴드8 선출시 가능성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의 윤곽이 구체화되면서 그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해온 삼성전자와의 정면승부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화면을 갖춘 프리미엄 모델의 견조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애플의 합류가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IT팁스터 인스턴트 디지털 등은 애플 폴더블폰의 내부 설계와 외형에 대한 핵심 정보를 엿달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폴더블 아이폰이 올 하반기 아이폰18 프로 라인업과 함께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폴더블 아이폰에는 5500mAh 이상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될 계획으로 전해지며 이는 아이폰 라인업 중 최대급 배터리 용량이다. 삼성전자는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 폴드7(4400mAh)와 비교해도 높은 용량이다.



폴더블 아이폰 예상 이미지. /액루마스 X 캡처



삼성전자 3단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하반기 경쟁력을 갖춘 폴더블 신제품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 이전에 삼성전자가 Z플립·Z폴드8을 먼저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 양사가 공통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그간 폴더블폰의 난제로 꼽혀온 디스플레이 주름 문제 개선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8에 접힌 화면의 주름 시인성을 크게 줄인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초박형 유리(UTG) 구조와 레이저 가공 보강판을 통해 기존보다 접힘선이 눈에 띄지 않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애플은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는 7.8인치 내부 디스플레이와 5.5인치 커버 디스플레이, 터치ID, 듀얼 후면 카메라, A20 칩, C2 모뎀을 탑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애플은 주름을 최대한 줄인 폴더블 OLED 기술을 우선순위로 두고 개발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접히는 구간의 스트레스를 분산하는 구조(금속 지지판 등)를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올해 애플과 삼성전자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AI 경험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통해 스마트폰 사업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경험(MX)·네트워크 사업부는 지난해 4분

기 영업의 1조 9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5%, 전 분기 대비 47.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애플은 아이폰 판매 호조에 힘입어 2026 회계연도 1분기(2025년 10월~12월) 영업의 50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는 폴더블폰을 비롯해 플래그십 시장에서의 성과가 양사 간 격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상반기 기준 출고가 600달러(약 88만원) 이상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62%에 달한 반면 삼성전자는 20%에 그쳤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전체 판매량의 약 25%에 불과하지만 매출 비중은 60%를 웃돈다.

업계 관계자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단순한 선점 경쟁을 넘어 본격적인 주류 시장 경쟁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애플의 합류로 제품 완성도와 사용자 경험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메트로 한줄뉴스



▲정청래표 1인1표제, 당내 부작용 우려 목소리…  
“포퓰리즘 양성 우려”

▲김 총리 “광역통합·검찰개혁·정교유착 근절 등  
개혁과제 직접 쟁길 것”

/사진 뉴시스

▲민주, 장동혁 연설에 “유체이탈 화법…왜곡·선동 멈추고 입법 협조”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에 박능후 전  
장관 선임

▲양이원영, 이언주에 “갈라치기 업으로 여긴다”  
직격

▲조국 “공소청법은 ‘검찰 간판 바꾸기법’”…정  
부안 수정 요구

#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

당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현행법상 고의 또는 과실요건 삭제  
“제재뿐 아니라 피해구제 실제화”

국회 정무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가 4일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뿐 아니라 피해구제를 실제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현행법상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서 기업들이 유출에 대해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일시: 2026년 2월 4일(수) 오전 8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

당정의 설명이다.

양정삼 개인정보보호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처리자 유출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선언하고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법정을 바꿨다”며 “처리자가 의무를 다 수행하거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유출 사고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하면 책임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해서 손해배상 사업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박사회수석부의장은 “다크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통돼 범죄피해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유출된 정보임을 알면서 거래할 경우 형별 규정을 신설해 불법 유통을 근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기업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행명령을 강제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증거보전 명령 도입,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 등을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에서 신속한 입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은 입법사항이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경애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SK텔레콤,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잦아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과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는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국민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도 중요한 과제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방지, 일상 속 스마트 기기의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 개인들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구윤철 “농업 부문 ‘AI 대전환’ 2900억 투입”

연내 민관 출자 농업회사법인 설립  
공공조달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농업 부문의 ‘인공지능 대전환’에 공공과 민간에서 출자한 자본 총 2900억 원이 투입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농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농업 AX 플랫폼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기후 위기, 인력 부족과 같은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에 AI를 적용해 AX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2900억 원(공공 49% 이하, 민간 51% 이상) 이상을 출자해 농업회사법인(SPC)을 연내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병충해와 질병을 진단하는 농·축산 AI 솔루션을 개발해 농가에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고령 농가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

민과 초보 농업인 누구나 전문적으로 스마트팜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한국의 스마트팜 모델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차세대 스마트 온실 및 축사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번 추진 방안은 현재 스마트농업이 시설·장비 보급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생산

자의 숙련도와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현행 스마트농업 구조가 고령농·초보농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생산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공공 출자자로 참여하고, 민간에서는 앵커기업을 비롯해 농업인·농업경영체, 농식품기업, 지방정부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도 제시됐다.

구 부총리는 “AI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해 혁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요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AI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가점 등 우대조건을 부여하겠다”며 “혁신제품 평가 시에는 ‘AI 전용 트랙’을 신설하는 등 AI 제품이 공공에 신속하고 쉽게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李 대통령, 설 명절 선물 ‘집밥 세트’ 준비

靑 “‘일상 회복’ 국정방향 반영”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 선물로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가 포함된 ‘집밥 세트’를 준비했다.

/청와대

과 지역 균형 성장, 모두가 체감하는 일상 회복이라는 국정 방향을 이번 선물에 반영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동봉한 카드를 통해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내일은 오늘이 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친밀하게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 기자 syj@

## LG엔솔-한화큐셀, 북미 에너지사업 파트너십 강화

1조 규모 ESS배터리 공급 계약

LG에너지솔루션은 한화큐셀 미국법인에 1조원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를 공급하며 북미 전력망 시장에서 대형 수주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화큐셀 미국법인과 총 5GWh(기기와트시)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공급 제품은 미국 미시간주 휠랜드 공장에서 생산되는 ESS용 리튬이

산철(LFP) 배터리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돼 한화큐셀의 미국 내 전력망 ESS 프로젝트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5월 체결한 4.8GWh 규모의 ESS 공급 계약에 이은 두 번째 성과다. 첫 계약을 통해 검증된 제품 경쟁력과 현지 생산 역량이 추가 수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계약 규모와 협력 범위가 확대되면서 양사 간 장기 파트너십도 한층 강화됐다.

양사는 미국에 구축한 생산 거점을 기

반으로 배터리와 태양광 모듈을 연계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홍 LG에너지솔루션 베테크 법인장은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화큐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차별적 가치를 기반으로 장기적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사가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이 고객 사업의 장기적 성공과 미국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 류진 회장 “과감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경제인협회〉

» 1면 ‘李 “중기·지방·청년”’서 계속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주구협의회 의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해 한화그룹·롯데그룹·포스코그룹·HD현대·GS그룹·한진그룹 총수 또는 경영진이 참석했다. 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류진 회장은 10개 그룹이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과감한 투자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외된 지역 청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 5대거래소 대표 국회 면담… “한국만 규제, 경쟁력 떨어져”

##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에 업계 반발

이정문 당 디지털TF 위원장 찾아 대주주 지분 제한 ‘금융위안’ 쟁점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란 업계 “규모별 차등 적용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 ▲거래소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은행 중심 제한을 담은 규제가 강화된 ‘금융위원회’ 안을 채택하자,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4일 국회를 긴급 방문해 이정문 당 디지털TF 위원장을 면담했다.

문제는 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거래소에 과도한 지분 규제를 하지 않는 등 산업 육성을 중점에 둔 디지털자산기본법 TF 안을 지난달 29일 정책위에 전달했으나, 정책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은행 중심 제한 등을 담은 ‘금융위안’을 받으면서 발단이 됐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문서로 정리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해 일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에 전달한 바 있다.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 S)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을 방문해 업계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표들이) 거래소 지분 제한 이슈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경쟁력, 시장 점

유율이 낮은 회사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국경 없는 시장이다 보니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만 규제가 있으면 해외 기업과 차별 받으면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 고 넷플릭스 같은 회사처럼 잠식당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해주셨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본래 디지털자산 TF 안에는 거래소 지분 소유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며 “TF는 금융위

안을 검토해 수용 가능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은 반대 했으나 정책위 의장이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지분 소유 제한은 금융위 안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거래소만 규제에 묶이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져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해야겠다면 거래소 규모별로 지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는 금융당국과 최종 조율을 거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최종발의한다는 입장이며, 당 TF는 TF의 입장과 현장의 의견을 정책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은 성

명서를 내고 “지분율 제한을 추진하는 금융위의 문제의식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성·공공성 강화’와 ‘특정 주주에게 집중된 자제력으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 해소’로 요약된다”며 “물론 ‘책임성·공공성 강화’와 ‘이해상충 해소’는 정책 당국 입장에선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요한 목표일 것이나, 하지만 지분율 제한이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위가 제시한 이유 자체도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대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지면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인과 관계가 없다”면서 “오히려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주요 주주들은 인위적으로 낮춰진 지분율을 근거로 망령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더 소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시장 독과점과 수의 집중, 이해충돌 우려 등의 이유 만으로는 재산권 제한 등 헌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당정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며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고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하는데 대해 “민간의 혁신과 노력으로 성장한 산업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규제이며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투자 위축과 국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KS인증, 공장보유 족쇄 풀다 설계·개발 기업도 취득 가능

취득주체 확대 OEM 상용화 기대  
갱신 3년 → 4년 교육·심사 부담 ↓  
불법 KS표시 즉각 조사 미달땐 취소

정부가 60여년간 ‘공장을 보유한 제조’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앞으로는 공장이 없는 설계·개발 기업도 KS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KS인증 도용과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인증 취소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KS인증 취득 주체가 확대된다. KS인증은 지난 1961년 도입 이후 한국 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 수준을 충족하는지와 함께,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디파운드·소량생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되면서 설계·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이 인증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설계·개발자도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국표원은 이번 조치로 반려로봇 등 첨단 제품을 개발하는 OEM 기반 기업들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인

증 취득 후 3년마다 받아야 했던 간접심사 주기를 4년으로 늘려, 의무교육과 공장심사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

불법·불량 KS인증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은 대폭 강화된다. 우회수출 증가 등으로 불법 KS제품 유입이 늘고 있다. 판단에 따라, 정부는 관세청과 협업해 철강, 스테인리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 단계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조사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S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이 KS표시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정부는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즉각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심사나 간접심사와 관계없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인증 방식도 손질된다. 현재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허브·너셀·타워를 포함한 패키지형으로 운영돼, 일부 부품만 변경돼도 전체 재검증이 필요했다. 국표원은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IECRE RNA(Rotor Nacelle Assembly) 방식을 도입해, 타워나 하단부 변경 시 재검증 없이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KS 인증제도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평택시 안중출장소 공고 제 2026 - 32호

# 공 고

『석정1리 마을진입로(소로2-2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며, 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 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5.

##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 1. 사업 개요

공사명	사업시행자	보상 내역	보상 계획	비고
석정1리 마을진입로 (소로2-2호선) 확포장공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일원	가. 토지 - 24필지(1,238m <sup>2</sup> ) 나. 지장물 - 6건	<input type="radio"/> 3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후 개별통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input type="radio"/> 현금 보상 <input type="radio"/> 보상시기 : 2026. 5. ~ (계획 변동가능)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방법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
- 기한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제출양식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업체 : 감정평가사

○ 추천일 :

연번	토지소재지	편입지 번	편입면적 (m <sup>2</sup> )	소유자		설명 날인 (자택/휴대폰)	비고
				성명	실제주소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 후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2. 사업시행자 :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3. 사업 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7. 12. 31.

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26. 2. 5. ~ 2026. 2. 19. (14일간)

나. 장소 :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포승읍 행정복지센터 (☎ 031-8024-8422)

5. 토지조서 : 별도첨부

※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고시공고 참조



# “과거 ‘닷컴버블’과 다르다 AI 투자, 이미 수익화 단계”

페드로 팔란드라니 글로벌X 상품 리서치 본부장

“현재 AI 투자, 닷컴버블 단계 아닌 기술·산업 확산 성장 국면  
누가 AI로 실제수익·현금흐름 만들어내고 있는지 봐야 할 시점  
아직도 입초기 단계… 향후 10년은 경제 영향 끼칠 가능성 커”

## 국내 투자자 미국주식 보관금액 상위 20개 종목

단위: 달러 ETF 포함, 2026년 1월 29일 기준



자료/한국예탁결제원

### 글로벌 ETF 전략가 분석

AI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주가가 급등할 때마다 ‘버블’이라는 경고가 뒤따르고, 조정이 나타나면 과거 ‘닷컴버블’의 악몽이 소환된다. 하지만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는 이 논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단기 급등락에 반응하기보다, AI를 중심으로 지수와 섹터, 인컴 자산을 함께 담는 구조로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페드로 팔란드라니(Pedro Palandri) 글로벌X(Global X) 상품 리서치 본부장(Head of Product Research & Development)은 최근 AI를 둘러싼 시장의 논쟁을 단기 과열이나 버블 논쟁으로 해석하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글로벌X 본사에서 메트로경제와 만나, 현재의 AI 투자 국면은 과거 닷컴버블과 같은 붕괴 위험을 전제로 한 단계가 아니라 기술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성장 국면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단기과열·버블논쟁 해석 선 그어  
특정 빅테크 벤류만으로 판단 위험  
DC·반도체 등 투자대상 훨씬 넓어

서학개미 美 주식보관 상위 종목  
레버리지·배당·국채 ETF 나란히  
장기적 자산배분 관점 반영 결과

AI가 특정 기업의 주가를 밀어 올리는 테마를 넘어, 실제 기업의 비용 구조와 생산성, 수익 모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AI를 둘러싼 논의가 주가 수준이나 벤류에이션에만 머무를 경우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된다”며 “지금은 누가 더 많은 사용자를 모으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AI를 통해 실제 수익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AI 인프라 투자와 실제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을 단기 과열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 ◆ “닷컴과 다른 이유는 수익”… AI는 이미 실적의 영역에 들어왔다

팔란드라니 본부장은 AI를 둘러싼논쟁의 핵심을 ‘수익성과 도입 단계’로 설명했다. 과거 닷컴 시기에는 사용자 수와 트래픽이 주가를 움직였지만, 지금은 기업의 실적과 현금흐름이 AI 투자의 지속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투자 행태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들 기업은 AI 인프라 구축에 연간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지만, 동시에 막대한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다. AI 투자가 ‘미래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이미 수익화 단계로 진입한 투자라는 설명이다.

AI 투자 구조 역시 과거 기술 사이클과는 다르다고 봤다. 초기에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서버 등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가 이뤄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프트웨어와 응용 계층으로 수익이 확산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AI는 아직도 단기 초기 단계에 가깝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10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은 그 확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구간”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AI 기회를 특정 빅테크 기업의 벤류에이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반도체, 전력 인프라, 유틸리티, 전력화(electricification), 원자력까지 AI 생태계 전반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대상은 훨씬 넓다는 것이다.

### ◆ Top20이 말해주는 ‘한국식 AI 투자 구조’

이 같은 인식은 한국 투자자의 실제 미국 주식 보유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1월 29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상위 종목을 보면,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대형 기술주가 잇는다. 동시에 나스닥100과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역시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구성의 ‘폭’이다. 반도체 레버리지 ETF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과 함께, 배당 ETF와 단기 국채 ETF도 나란히 상위 보관 종목에 포함돼 있다. 성장성과 공격성을 앞세운 자산

빠른 학습·적응력 가진 국내 투자자  
개별종목서 테마 ETF로 투자 확대  
단기·장기 계좌 분리운영 패턴 뚜렷

호기심·규율 공존하는 투자 평가  
미 주식 보유방식 단기간 변화 어려워

과, 변동성을 완화하는 자산이 한 포트폴리오 안에 공존하는 구조다.

팔란드라니 본부장은 이를 두고 “단기 시세를 노린 구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개별 성장주만 만들고 있다면 이는 베팅에 가깝지만, 지수·섹터 ETF와 인컴 자산까지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성격이 달라졌다”며 “장기적인 자산 배분 관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AI 대표 종목을 중심으로 성장성을 확보하면서도, 지수 ETF를 통해 시장 전체를 담고, 배당과 채권 ETF로 변동성에 대비하는 방식은 하루 이틀의 수익률을 전제로 한 전략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 투자자들은 AI라는 큰 흐름을 중심에 두고, 그 위에 여러 층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개별주에서 ETF로”… 빠르게 진화하는 한국 투자자

팔란드라니 본부장은 한국 개인투자자의 가장 큰 특징으로 ‘빠른 학습과 적응력’을 꼽았다. 새로운 테마와 정책, 구조적 변화를 빠르게 흡수하고, 이를 투

자 방식에 반영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 투자에서 출발해 AI·방위·인프라 같은 테마 ETF로 확장하고, 이후 인컴과 현금 흐름 전략까지 자연스럽게 가져간다”며 “단기 계좌와 장기 계좌를 분리해 운용하는 패턴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한 선호 역시 단순한 투기 성향으로 보지 않았다. 투자 기간과 목적에 따라 전략을 구분하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는 “확신이 높은 구간에서는 공격적인 전략을 활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장기 계좌에서는 규율 있는 축적이 이뤄지고 있다”며 “호기심과 규율이 공존하는 투자 행태”라고 평가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인식도 이 흐름을 뒷받침한다. AI, 방위, 인프라처럼 정책과 자본지출, 기업 실적이 동시에 움직이는 산업 기반이 존재하고, 이를 ETF를 통해 비교적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다는 점이 장기 투자에 적합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팔란드라니 본부장은 “이런 구조적 테마가 유지되는 동안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방식은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며 “이는 환율이나 단기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 구조가 달라졌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투자자들은 이미 그 변화를 말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로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AI 시대를 여는 KEY



대한민국 산업화의 문을  
에너지로 열었고

정보화의 문을  
통신으로 열었으며

AI 전환의 문을  
반도체로 열었습니다

국가 성장의 순간마다  
묵묵히 함께 해온 SK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Key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K**

# 경선부터 치열… 뉴 페이스의 탈환이나, 보수의 수성이나

## 지방선거 돋보기

### ① 최대 격전지 서울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과는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여서 민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로도 평가된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내란 심판'의 완결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을 지원하는 토대를 만드는 계기로, 야권에서는 '정권심판·민생심판'을 앞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총 7회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를 인물, 전략 중심으로 분석한다. (편집자주)

지난 8회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반감을 등에 업고 등장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린 21대 대선 이후 3개월만에 치러져 17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12곳(서울·인천·대전·충북·충남·세종·울산·대구·부산·강원·경북·경남)에서 승리하며 지방권력을 손에 넣었다. 더불어민주당은 5곳(경기·전북·전남·광주·제주)에서만 승리하며 씁쓸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연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한 가운데 치러지는 제9회 지선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 변모했다.

#### ◆4년 전 25개 자치구, 426개 모든 동에서 국민의힘 승리

국민의힘은 4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 서 압승했다.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장 선거 4선에 도전한 오세훈 당시 국민의 힘 후보에게 59.05%의 지지를 보낸 반면, 송영길 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졌던 인천을 떠나 서울시장에 도전했으나 39.23%라는 초라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판세는 4년 전과 다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중도층 민심이 상당수 국민의 힘에서 이탈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여론조사가 다수 나오는 등 민주당에 훈풍이 부는 분위기여서, 4년 전과 같은 압도적 보수 정당 지지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與 '5+1'·野 '오세훈 VS 대항마' 경선부터 치열

이에 민주당 서울시장 주자들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치며 치열한 내부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중진인 김영배(재선)·박주민(3선)·박홍근(4선)·서영교(4선)·전현희(3선)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을 마쳤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칭찬해 인지도를 높인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출판기념회를 열며 사실상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3연임이자 5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



####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정원오 성동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신동욱 최고의원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

#### 국민의힘 후보군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

지난 선거서 25개 자치구 등 국힘 贏 민주당 중진 잇따라 선거 출사표 대권주자급 자원 오세훈 5선 도전 '세계 통한 집값 안정화 정책' 변수

는 당의 중진이자, 중도층에도 호소력이 있는 대권 주자급 지원이다. 다만, 장동혁 지도부가 우경화된 상황에서 오 시장은 외연화장을 강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과 절연을 요청한 바 있어 당 지도부와의 관계 설정도 경선 시 주목할만한 요소다.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시사한 주자는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 외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심 지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경원 의원·신동욱 최고위원도 거론된다.

#### ◆서울시민 민감한 부동산 이슈, 선거 판 흔들까

역대 정부 들어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한 정책 변수는 '부동산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여부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태릉CC,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을 개발해 공공 주도로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협의회를 열고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민간 중심의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강벨트를 포함해 3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료돼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물 공급으로 집값 상승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실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공급은 힘들 것이라고 보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여당이 세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하나, 지방선거 이후에 집값 오름세가 잡히지 않으면 실제 부동산 규제 혹은 세제 강화 카드를 내놓을 수 있어 유권자의 선택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장동혁,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제안

###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노란봉투법 유예 등 친기업 정책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요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1년 유예 등 친기업 정책을 대거 꺼내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

기 전에 원청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공공기관 산하 공무직과 용역 근로자 노조에, '원청 직접 교섭' 지침을 내린다고 한다"면서 "이런 마당에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리거나 생산 라인을 변경하는 경영 전략도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은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노조들과 1년 내내 단체교섭을 해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강력한 '자사주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소액주주 권리의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 여력과 대응 수단이 부

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은 경영 불안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근로자 주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상법과 근로기준법도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인하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1%포인트(p)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p로 인상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신기술, 신산업은 창의와 혁신에서 출발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으로, 신산업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오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 재경위, 명절 전 '대미투자특별법' 현안질의

### 업무보고·법안 상정, 간사 간 협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4일 구정 전에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현안질의를 열고 간사 간 법안 상정 여부도 협의하기로 했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호 재경위 여당 간사, 박수영 재경위 야당 간사, 차구근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임이자 위원장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관세 재인상(글을) 올리면서 '입법 지연'이라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인데, 재경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26일에 법안이 발의됐고, 숙려기간이 있고, 12월달에 다른 법들을 처리했고, 1월달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고, 이제 논의를 할 시점이라서 하는 것이고 절대로 국회에서 입법을 지연시킨 것은 없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책임전가할 사안은 아니다. 지금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

해보는 시기"라며 "현안질의, 업무보고, 법안상정을 구정 전에 양당 간사 간 일정을 잡도록 했다. 일정 잡는 것을 협약했으니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라는 입장인데, 이 입장이 철회됐다는 질문에 "특별법은 우리(재경위) 소관이고 비준 동의는 외통위 소관"이라며 "비준 동의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구윤철 부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는 질문에 "특별법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오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너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난 후에는 약간의 변화는 보여진다고 했다"며 "박수영 간사가 '그럼 이 법을 하면 25% 재인상 부분이 다시 15%로 내려간다는 보장이 있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종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차분히, 무엇이 국익인지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 주요국선 이자논의 등 제도 편입… 국내선 관련논의 미진

## ‘스테이블코인’ 현주소

美 클래리티법·지니어스법 등 논의 유럽연합·일본 등서 제도권 편입  
李 대통령, 작년 대선공약 했지만 국내선 입법만 1년 가까이 지연중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가 확대하고 있다.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두고 견해가 엇갈리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의 실물 시장 도입을 위해선 ‘차세대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활성화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초 법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뒤쳐지고 있다.

### ◆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쟁점

4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 은행권과 디지털자산업계는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클래리티법(Clarity Law·가상자산시장구조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조속하게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이자 지급 등 쟁점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의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놓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뉴스스

‘클래리티법’은 개별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규제기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통과된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함께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법안이란 평가다. 다만 지니어스법은 법안 실행을 앞둔 반면, 클래리티법은 미 상원에 둑여 있다. 스테이블코인 유통 시 거래소의 이자지급 허용 여부를 두고 업권 사이의 견해차가 분명해서다.

현재 쟁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허

용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통과된 지니어스법은 통화 가치 안정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이자지급을 금지했는데, 같은 기준을 거래소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

은행업계에서는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허용 시 은행권 예금이 빠르게 이탈할 것이며, 나아가 기존 금융질서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거래 활성화와 혁신을 위해 이자 지급이 허용돼야 하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고객의 선택권

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 ‘차세대 기준’ 부상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한 가운데, 디지털자산 업계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차세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의 대다수는 이더리움(ETF)과 트론(TRON)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유통된다. 이들 네트워크는 높은 안정성 및 확장성·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어 디지털자산 거래에 용이하지만,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처로 논의되는 간편결제·송금

등에는 부적합하다. 의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송금 및 결제에 걸리는 시간도 수십 초 이상으로 길어서다.

코빗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현재 스테이블코인 전체 유통량의 94%는 디지털자산 네트워크 내에서만 활용된다. 실물 경제에 활용되는 비중은 6%에 불과하다.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당시 예측했던 ‘안정적이고 빠른 결제 인프라’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 입법 지연…경쟁력 저속 악화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

가 미진하다.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관련법 입법이 1년 가깝게 늦어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5월 대선 유세 당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여야가 각각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발행 요건과 감독 기구 등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견해차로 관련 논의가 지연됐다. 작년 6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최초 발의한 여당은 2월 내 당론을 결정해 3월까지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를 내놓은 상황이다.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입법 지연에 우려하고 있다.

한 디지털자산업계 관계자는 “핀테크·간편결제 등 관련 업계에서는 원화 코인 발행을 준비하며 법안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법안 처리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서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도 상장 등 주요 현안이 기본법에 함께 묶여있고, 각종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도 기본법 이후에야 논의할 수 있어 법안 통과를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자동차보험료 오른다… 이달 1.3~1.4% ↑

손해율 급등에 5년만에 인상국면  
삼성화재 등 11일부터 인상안 반영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2월 중순부터 자동차보험료를 1%대 인상하면서, 2021년 이후 5년 만에 인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손해율이 손의분기점으로 거론되는 80%대 초반을 웃도는 흐름이 이어지는 데다 정비 원가까지 오르자 업계는 “요율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1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1.4% 인상안을 반영하고,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16일부터 각각 1.3%, 1.4% 인상을 적용한다. KB손해보험은 18일, 메리츠화재는 21일부터 1.3% 인상을 예고했다.

자동차보험료 조정은 통상 ‘책임개시(갱신·신규) 계약’부터 반영되는 만큼, 2월 중순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운전자부터 인상분을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

인상의 1차 배경은 손해율 악화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4개사(삼성화재·현대해



Chat GPT가 생성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이미지.

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2025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로 집계됐

다. 12월 한 달만 떼어 보면 4개사 손해율(단순 평균)이 96.1%까지 뛰어 전년 동월 대비 3.3%포인트(p)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월 손해율이 96%를 넘어선 것도 6년 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손해율을 끌어올린 요인이 ‘빈도’보다 ‘단가(사고 1건당 지급액)’로 옮겨가고 있다고 본다. 연말 계절 요인에 더해 수리 공정의 복잡화, 부품비 상승, 경상환자 과잉진료 논란 등 비용 요인이 겹치면서 사고 1건당 지급보험금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정비 공임에 따라 인건비와 수리 비용

이 시간당으로 쌓이는데, 공임이 2~3%만 올라가도 사고 수리비가 그만큼 늘어난다”며 “손해액이 증가하면 손해율(손해액/보험료)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비 원가 상승도 부담이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2026년 자동차보험 시간당 정비공임(정비수가) 조정률을 전년 대비 2.7% 인상으로 의결했고, 1월 1일 입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인상폭이 1%대에 그친 것은 원기를 전부 반영한 인상이라기보다 의무보험 특성과 소비자보호 기조를 감안한 ‘최소 조정’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자동차보험료는 의무보험이라 물가와 연계되는 민감한 항목이어서, 보험사가 손해율·원가 압박을 호소하더라도 인상 폭을 크게 가져가기 어렵다는 것.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환경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사회적 피장이 큰 이슈”라며 “결국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 LH, 증간소음 자재 사전인정 온라인 수행

G4B 내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증간소음 자재의 사전 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증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만들 어진 자재를 시험하고 1~4등급까지 등급을 매기는 사전 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과 부대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총 133건(유효 건 기준)이 인정됐다.

LH는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되

던 사전 인정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온라인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앞으로 인정 신청 접수, 인정 진행, 성적서·인정서 발급 등 모든 절차를 별도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인정서 위변조 방지와 진위여부 확인 기능도 추가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 이달 최종안·초안 발표 하기로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발표한 이후 4월까지 로드맵을 확정한다.

금융위는 권대영 부위원장(사진)이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에서 관계부처·산업계·투자자·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공시기준 및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3) 포함 여부와 최초의무공시 시점을 둘러싼 이견 등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달 말 발표할 초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작성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

안의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2024년 4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공개초안을 마련한 뒤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공시기준의 전반적 틀에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쟁점은 스코프3 공시 포함 여부다. 스코프3는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스코프1)나 에너지 소비로 인한 간접배출(스코프2)이 아닌,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한다. 경제계는 “광범위한 공급망 데이터 수집·측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스코프3를 공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DB손보, 결산배당 7600원… 11.8% ↑

주주환원 확대…밸류업 의지 확인

늘린 결정은 자본건전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다.

DB손해보험은 2025회계연도 결산배당으로 주당배당금(DPS) 7600원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보험업 전반의 손의 문화에도 전년 대비 11.8% 배당을 늘려 주주환원 확대 기조와 밸류업 계획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해 보험업계는 저성장 기조와 손해율 상승 영향으로 전반적인 손의 감소를 겪었다. DB손보 역시 보험순이익이 전년 대비 줄어 배당 확대 부담이 있었지만 주주환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배당 규모를 확대했다. 실적 문화에도 배당을

/김주형 기자

# K-기업, 역대급 실적에도 못 웃어 성과급 협의 등 노조리스크 '진통'

높은 실적에 보상심리 커져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 갈등도  
“노사관계, 기업경영 핵심 변수”

삼성전자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노조리스크로 조용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저력을 과시했고 현대차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 확대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에도 근무환경, 성과급 등을 놓고 노사간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후 55년 만에 첫 단일 과반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지난해 반도체 호황 속에서도 성과급 체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가운데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인센티브 지급 소식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반수 노조 출범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의 노사문

화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2018년 처음 노조가 설립됐으며 현재는 5개 조합이 활동하는 복수노조 체제로 단일 과반 노조는 없었다. 초기 노조가 공식적으로 근로자 대표 지위를 확보할 경우 교섭 대표 노조자격을 얻어 단체교섭권과 근로조건 결정권 등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초기 노조는 임금 개선과 조합원 복지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노조는 “이공계 인력에 대한 정당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 및 저우 체계는 장기적인 연구개발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단일 과반 노조가 출범하면서 반도체와 세트 사업 간 실적 온도차가 큰 상황에서 일률적 보상이 사업부 간 이해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호황기 기준으로 높아진 보상 기대가 중장기적으로는 회사 경영의 발복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노조의 움직임은 국내 완성차 업계 만형인 현대차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매년 임단협 협상을 진행

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되풀이 했지만 올해는 현대차가 미래 경쟁력으로 내세운 로보틱스 전략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전의 단순한 임금 투쟁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외형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질적 성장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생산성과 비용 절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노조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아직 국내 공장에 로봇 투입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노조는 회사가 미국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해 생산량을 확대할 경우 국내 고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역대급 실적에도 ‘공정 보상’과 ‘기술적 전환’에 대한 노조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삼성의 경우 성과급 불만에서 출발됐다는 점에서 노사관계가 향후 기업 경영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한화 방산3사, 미래형 통합 무기체계 첫 공개

### 월드 디펜스 쇼 2026

역대 최대 규모 전시부스 운영  
“사우디 국방·산업자립 기여”

한화는 오는 8~12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월드 디펜스 쇼 2026(WDS 2026·사우디 방산 전시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 등 방산3사 통합 전시부스를 구성해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한화 방산 3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677m<sup>2</sup>(약 50m<sup>2</sup> 포함)의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AI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통합 무기체계인 ‘배회형 정밀유도무기(L-P GW)’를 글로벌 시장에 처음 공개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선보이는 L-PGW는 AI가 스스로 표적을 정찰·식별하고 타격까지 수행하는 차세대 무기체계로, 위성 데이터링크를 통해 정보를 전송한 뒤 타격 단계에서 자폭 드론이 분리·발사되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했다.



‘WDS 2026’ 한화 부스 조감도.

/한화

한화시스템은 감시정찰과 우주, 해양 전장을 아우르는 AI 기반 미래 전투체계 비전을 제시한다. 지상 무기체계와 함께 운용돼 저고도에서 드론 등으로 대변화되는 대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레이이다(MMR)를 공개한다.

해양 분야에서는 한화오션의 잠수함과 수상함을 아우르는 네이버 솔루션 역량을 공개한다. 지난해 10월 진수된 장보고-III 배치-II 3000톤급 잠수함을 비롯해 잠수함 기지, 수상함, 무

인수상정 등이 전시된다. 특히 운용국가 맞춤형 토탈 패키지 형태의 잠수함 기지는 설계와 건설, 장비 공급은 물론 정비와 운용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제시된다.

한화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원팀이 돼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협력사와 함께 세계 시장에 함께 나가겠다”며 “사우디의 국방과 산업 자립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원민희 기자 wkh@

## 현대차·기아, 1월 미국시장 역대 최대 판매

하이브리드·SUV 중심 구조재편 주효

현대자동차·기아가 올해 1월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고부가 차종인 하이브리드와 스포츠유틸리티(SUV) 중심으로 판매 구조를 재편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4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판매 실적은 12만529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 성장했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가 6만794대로 2.4% 확대됐고, 기아는 6만4502대로 13.1% 늘었다.

현대차는 리세이드가 8604대 팔리며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했다. 코나(5321대)도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

하며 SUV 판매 호조가 지속됐다.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는 5170대 판매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GV80(1945대·21.3%), GV70(2220대·9.8%)가 브랜드 판매를 이끌었다.

기아는 셀토스(5278대)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85.8% 증가했다. 이 외에도 전년 동기 대비 카니발(5879대)이 60.4%, 니로(3170대)가 163.7%, K5(6276대)가 44% 성장했다.

/양성운 기자



포스코그룹,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속도

르소나 AI 등 4개사가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좌측부터) 정규호 포스코 DX 전략실장, 심민석 포스코DX 사장, 니콜라스 래드포드(Nicolaus Radford) 페르소나 AI CEO, 김근환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포스코그룹

## 삼성전자, AI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 전시

### 코리아빌드워크서 59.5m<sup>2</sup> 주택 선봬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건축박람회에서 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을 전시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건축박람회 ‘2026 코리아빌드워크’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코리아빌드워크’는 국내·외 건축 기자재 및 기술을 소개하는 건설·건축·인테리어 전문 전시회로 90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 목조 모듈러 주택사 ‘공간제작소’와 협업해 AI 홈 기반의 ‘모듈러 홈 솔루션’을 적용한 59.5m<sup>2</sup> 규모의 모듈러 주택을 선보였다.

이번에 전시된 모듈러 주택은 현관, 세탁실, 주방, 거실, 드레스룸, 침실, 보안 등 총 7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귀가부터 휴식과 수면, 안전 관리까지 일상 전반에 적용되는 최신 AI 홈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양혜순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AI 가전과 스마트싱스를 적용한 모듈러 주택 전시를 통해, 실제 주거 환경에서 AI 홈이 제공하는 가치와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며 “다양한 주거 형태에도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모듈러 홈 솔루션’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주거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캐나다 국방조달장관, HD현대 GRC 방문

### 잠수함·함정 건조 역량 점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전의 핵심 인사인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장관이 HD현대를 찾아 잠수함·함정 건조 역량과 기술력을 직접 점검했다.

HD현대중공업은 4일 오전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장관과 필립 라포르트 주한캐나다대사 일행이 HD현대 글로벌 R&D센터(GRC)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장관 일행은 박용열 HD현대중공업 함정사업본부장(부사장)의 안내로 구축함·호위함·잠수함·무인수상정 등 HD현대중공업이 개발·건조해온 주요 함정 전력을 살펴봤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자율운항 기반 미래형 선박



4일,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장관 일행이 HD현대 관계자들로부터 잠수함 모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HD현대

개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디지털 선박·자율운항 분야 기술 역량도 점검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 현대로템, 3200억 규모 경전철 사업 수주

### 캐나다 에드먼턴 시정부 계약

현대로템이 캐나다 에드먼턴시(市)에서 운행되는 모든 경전철(LRT) 노선에 철도차량을 공급한다.

현대로템은 3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州) 에드먼턴 시정부와 약 3200억 원 규모의 고상형 경전철 공급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소형 궤도차량을 의미하는 경전철은 주로 도시의 교

통선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트램(노면 전차)도 경전철 범주에 해당한다.

현대로템이 이번에 수주한 경전철은 총 32편성(연성당 3량)으로 최고운영속도는 80km/h이다. 시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해 주변부를 이어주는 캐피탈과 매트로 노선에 투입될 이 차량은 기존 노후화 차량을 대체해 출퇴근 직장인들에 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할 전망이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

# 타이어 3사, 고인치·EV 수요 타고 ‘관세 리스크’ 돌파

3사 합산 매출 18조2506억 추정  
한국타이어 ‘매출 10조’ 고지 넘겨  
넥센 체코공장 증설 등 물량 반영  
금호 광주공장 화재 여파 이익 둔화  
해외 생산·증설로 대미관세 분산

미국의 관세 폭탄에도 국내 타이어업계가 실적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금호·넥센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3사는 지난해 고인치·전기차 타이어 등 고수익 제품 수요 확대에 힘입어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

4일 타이어업계에 따르면 이날 경영 실적을 발표한 한국타이어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10조318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창사 이래 첫 10조원 돌파로 영업이익은 1조6843억원, 영업이익률은 16.3%를 기록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글로벌 신차용 및 교체용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성장과 고인치 타이어 판매 비중 확대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누적 기준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 매출 중 18인치 이상 고인치 타이어 판매 비중은 47.8%, 승용차·경트럭용 신차용 타이어 매출액 중 전기차 타이어 비중은 27%로



넥센타이어 체코 공장 전경.

집계됐다.

또 포르쉐, BMW, 샤오미, 루시드 모터스, 쿠프라, 기아 등 브랜드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했다. 현재 40여개 브랜드, 300여개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글로벌 텁티어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넥센타이어도 지난해 매출액 3조186억원으로 전년(2조8479억원) 대비 12.0%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24년(1721억원)보다 1.1% 줄었지만 순이익이 1512억원으로 같은 기간 19.3% 상승 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연간 매출액 2조원을 돌파한 이후 6년 만에 3조원을 넘어서며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 외형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외형성장은 유럽공장 2단계 증설 물량의 안정적인 실적 반영이 주효했다. 미국의 품목관세를 비롯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판매 확대를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신차용(OE) 시장에서는 30여 개 글로벌 카메이커를 대상으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아우르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지역별 최적화된 제품 전략을 통해 교체용(RE) 부문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갔다.



한국타이어 헝가리 공장 전경.

오는 6일 실적을 발표하는 금호타이어도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 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4조7424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5월 광주공장 화재 영향 등으로 6.8% 감소한 5482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타이어 3사의 지난해 합산 매출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18조2506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타이어 3사는 올해 해외 공장 증설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타이어는 미국 테네시 공장 및 유럽 헝가리공장의 증설 추진하고 넥센타이어도

체코 공장을 중심으로 유럽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려 자국 우선주의 확산에 대비 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베트남 공장 증설을 통해 동남아시아 공략에 나선 가운데 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폴란드에 유럽 최초 생산 공장 건설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타이어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담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타이어 회사들은 북미, 유럽 등 해외 생산을 통해 수익성 방어에 나설 것”이라며 “글로벌 전역에서 제품과 유통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적 질적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개인·기업 기업가정신 개선… 반기업 정서 완화

중기부·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결과  
개인 56.4점서 56.6점 소폭 올라  
기업 47.7점서 51.4점 3.7점 상승

개인과 기업의 기업가정신 수준이 3년 전보다 개선됐다. 반기업 정서도 다소 완화됐다.

기업의 개선세가 더욱 눈에 띄는 가운데 특히 초기성장기업, 고도성장기업에서 기업가정신이 강한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일반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기업가정신 실태조사’를 실시해 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는 2022년 56.4점에서 2025년 56.6점으로 0.2점 올랐다. 항목별로는 ‘기업가적 역량’(0.4점 ↑), ‘기업가적

지향성’(0.1점 ↑)이 높아졌다. ‘기업가적 태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기업가정신 지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54.5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 별로도 1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54점대 수준으로 비슷했다.

2022년부터 도입한 ‘기업 인식’ 문항 분석 결과 개인의 ‘기업에 대한 긍정 인식’은 상승(0.5점 ↑)했다. 반면 ‘반기업 정서’는 소폭 감소(0.2점 ↓)했다.

기업 유형별로는 스타트업(64.3점), 벤처기업(63.8점), 대기업(62.9점), 중소기업(62.2점)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의 종합적인 기업가정신 지수는 47.7점에서 51.4점으로 3.7점 상승했다. 항목별로는 ▲비전과 전략(0.2점 ↑) ▲

기업가적 지향성(2.4점 ↑) ▲문화와 구조(2.8점 ↑) ▲운영체계(5.7점 ↑)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개선됐다. 특히 ‘성과’(9.7점 ↑)와 ‘경영환경’(8.6점 ↑)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는 기업 내부의 제도·조직·운영 기반 전반에서 기업가정신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여건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또 기업의 특성에 따른 기업가정신 수준을 분석한 결과 산업분류별로는 교육서비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장 단계별로는 고도성장기업이 비교군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기업가정신이 모든 기업에 균등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초기성장기업, 고도성장기업 중심으로 강화돼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김승호 기자 bada@

## 노란우산, 안전망 수요 타고 가입 증가

중기중앙회, 1월 신규 가입 2.5만명  
온라인가입 68.1% 늘어, 편의성 영향  
이달말까지 온라인 가입시 5만원 혜택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1월 한 달간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수가 2만5062명으로 전년동월(1만7819명) 대비 40.6% 늘었다고 4일 밝혔다.

가입채널별로 살펴보면 금융기관(1만

2394건), 온라인(6801건), 공제상담사(5393건), 기타(47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온라인 가입자수는 전년 1월 실적(4047명) 대비 68.1%나 증가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기둔화·소비심리 위축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안전망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란우산에 대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입 편의성, 프로모션 제공 등으로 온라인 가입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2월 말까지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모션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올해 이달 28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새로 가입하면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나 농협망설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오프라인 가맹점과 온누리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농협망설은 업선된 국내 고급 농산물 선물세트로 구성돼 있어 신규 가입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정수기·청정기 등 프로모션

코웨이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말까지 의료기기 신제품과 베스트셀러 제품들을 대상으로 ‘설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4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은 명절을 앞두고 가족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선물하려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및 허가를 획득한 의료기기 제품군과 환경 가전 베스트셀러 제품을 중심으로 렌탈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명절 효도 선물로 인기가 높

은 의료기기 제품군 혜택이 눈길을 끈다. 코웨이는 ‘비레스 코어셋·마사지셋’ 등 의료기기 4종을 대상으로 렌탈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가정용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인 ‘데라솔 U’는 신규 렌탈 시 6개월간 렌탈료 반값 할인 혜택을 적용해 월 1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수기·청정기·비데 등 주요 라인업도 대폭 할인한다. 신제품 아이콘 프로 정수기, 히터브 온풍 공기청정 등을 신규 렌탈할 경우 최대 12개월 렌탈료 반값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 설맞이 의료기기·환경가전 렌탈료 ‘반값’



지난달 28일 온산제련소에서 ‘드론·로봇용 복합동박 탑재 고성능 배터리 기술 개발’ 업무협약(MOU) 체결

이 뛰어나다.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밀도가 높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성능은 뛰어나지만 충전 시 팽창과 전도성 저하 등 단점이 있는 실리콘 음극재의 문제점을 완화해 주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NARA CELLAR

# 역시! 몬테스

#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양자암호통신, 차세대 보안 인프라로… 통신3사 선점 경쟁

정부, 통신3사와 함께 2028년까지 전국 단위 양자암호통신망 구축

SKT, QKD-PQC 결합 체계 운용  
KT, 1초당 30만개 암호키 생성

LG U+, 기술표준화·시장확산 주력

양자컴퓨터 상용화를 앞두고 기존 암호 체계의 한계가 현실화되자 정부와 통신업체가 양자암호통신을 차세대 국가 보안 인프라로 끌어올리고 있다.

정부가 전국 단위 양자암호통신망 구축에 나선 가운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기술 개발을 넘어 실제 보안 서비스와 사업 모델로 연결하는 단계에 진입하며 양자 보안 시장 선점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2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 3사와 함께 2028년까지 전국 단위 양자암호통신망(QKD)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방과 금융 등 보안 요구치가 높은 영역에



KT 직원들이 양자 암호키 분배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 /KT

이 기술을 우선 적용하고, 구축 비용을 현재 대비 10% 수준으로 절감해 양자 보안 인프라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통신업체가 양자암호통신에 집중하는 이유는 양자컴퓨터가 도입될 경우 기존 공개키 기반(PKI) 암호 체계인 RSA와 ECC의 보안성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양자컴퓨터의 연산 능력은 현재의 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무력화할 정도로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른 양자암호 기술은 데이터 전송 과정의 물리적 도청을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어 차세대 국가 보안의 필수 요소로 간주된다.

이 같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 기조 속에서 통신업체들은 단순한 기술 실증 단계를 넘어, 양자암호통신을 실제 보안 서비스와 사업 모델로 연결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 보안 인프라의 기반을 공공 영역에서 먼저 다진 뒤, 이를 민간과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통신 3사는 각기 다른 기술 접근과 사업 전략을 내세우며 양자 보안 시장 선점 경쟁에 돌입했다.

SK텔레콤은 2011년 연구소 설립 이후 양자키분체(QKD)와 양자내성암호(PQC)를 결합한 보안 체계를 운용 중이다. 최근에는 연합체 '엑스퀀텀'을 통해 제로트러스트 기반 원격 접속 보안 솔루션 'Q-SDP'를 공개하며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KT는 1초당 30만 개의 암호키를 생성하는 QKD 장비를 자체 개발했다. 이는 이전 기술 대비 생성 속도가 2배 향상된 수치다. 또한 단일 광자 제어 과정의 오류를 줄이는 필터 시스템을 개발해 시스

템 신뢰도를 높였으며, 이를 통해 양자인터넷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기술 표준화와 시장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제안한 PQC 지원 SDN 인터페이스와 'SOLMAE' 전자서명 방식은 국내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양자정보기술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 연합체 '퀀사(QuINS A)'의 의장사를 맡은 이들은 보안 플랫폼 'U+SASE'와 모바일 인증 솔루션 '알파키'를 통해 기업용 보안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를 공공 및 금융권 시범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동 발간한 '양자정보기술백서'에 따르면, 글로벌 양자통신 시장은 지난해 5조209억원에서 연평균 25.6%씩 성장해 2030년에는 24조73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양자통신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66억원으로 추산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논쟁 재점화

자율주행·위치기반 AI 서비스 제약  
글로벌 플랫폼 경쟁서 韓 규제 과도  
군사·국가 기반시설 통제력 악화 우려  
국내기업은 규제 준수… 역차별 논란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재차 제기하면서 정부와 업계, 전문가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자율주행·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가 안보 및 데이터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친다.

4일 IT 업계에 따르면 이 논쟁의 핵심은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성격에 있다.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길 안내를 넘어 차선 정보, 교차로 구조, 건물 위치와 형태 등 상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로, 자율주행차와 위치 기반 AI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구글은 해당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서 처리해야 글로벌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이 데이터가 군사시설과 주



요 국가 기반시설 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국내 지도 데이터는 관련 법에 따라 보안 시설을 허리거나 삭제한 뒤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는데, 해외 반출 시 관리·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안보 이슈와 맞물려 여러 차례 불허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반면, 지도 반출 찬성 측은 "이미 글로벌 플랫폼 경쟁에서 한국만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구글 지도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보·대중교통 안내, 자율주행 테스트 등에서 제약을 받으면서 이용자 불편이 누적되고 있고, 국내 스타트업과 산업 생태계 역시 글로벌 표준과 단절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AI와 자율주

행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규제 유지가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쟁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국내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며 규제를 준수하는 반면, 구글에만 예외를 허용할 경우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건부 반출"이나 "보안 처리 의무 강화" 등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 혁신과 안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AI·자율주행 산업 육성 기조 속에서 과거와 같은 일괄 불허 결정이 반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국토·IT 업계 한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과 산업 전략이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허용 여부보다 어떤 조건과 통제 장치를 마련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다크웹·가상자산 악용한 마약범죄 차단

과기부-경찰청, 통합시스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악용한 마약 유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크웹 및 가상자산 거래주적 연계 마약수사 통합시스템 개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크웹과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 유통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첨단기술 기반 통합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크웹 비익명화, 불법 범죄수의 가상자산 추적, 마약 광고 모니터링, 수사 정보 통합 분석 등 핵심 기술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다크웹 비익명화 기술을 통해 익명 네트워크 내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고, 기존에는 추적이 어려웠던 불법 계시물 작성자나 유포자의 실제 접속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를 수집·분석

해 마약 거래에 사용되는 불법 자금의 흐름과 거래 패턴을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통되는 마약 광고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마약 광고에 사용되는 은어와 표현 방식, 위장 광고 형태를 탐지하고 광고 확산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조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앞선 기술들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통합 관리·연계 분석하는 마약수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주요 식별자와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마약 범죄 조직의 구조와 활동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의 신규 과제 공모는 2026년 1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절차와 평가 방법 등 세부 내용은 관계 기관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 LG U+, 협력사 납품대금 250억 조기지급

설 명절 앞두고 전액 현금 지급  
지역사회 나눔활동 병행도

LG유플러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 대금 약 25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고,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14년부터 명절마다 중소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돋기 위해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이

번 설에는 약 250억원 규모의 대금을 2월 13일 일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조기 지급 대상은 무선 중계기와 유선 네트워크 장비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운영 등을 수행하는 협력사들이다.

LG유플러스는 명절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외에도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BK기업은행과 연계한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 우대금리로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직접자금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장비 테스트베드와 IoT 인증센터를 운영해 기술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통해 협력사의 기술 보호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 나눔 활동도 병행한다. LG유플러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통조림 햄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100여 개를 후암동 주민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선물세트는 사내 나눔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을 활용해 준비됐다. /김서현 기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실증 사업  
인력부담 ↓, 독거노인 일상 안전망 ↑

NHN의 웨이어링 플랫폼 '와플랫'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하며 '와플랫 AI 생활지원사'를 본격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고령 1인 가구의 안전과 일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와플랫 AI 생활지원사는 음성 기반 인식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약 알림, 생활 패턴 이상 감지, 정서적 교감 기능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돌봄 인력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독거노인의 일

상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I가 수집한 생활 데이터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는 데 활용된다.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거나 평소와 다른 생활 패턴이 감지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달하는 구조다. 실증 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자체 및 공공 돌봄 서비스로의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NHN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AI 기반 시니어 케어 사업을 본격화하고, 기술 중심의 돌봄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고령화가 속속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기술 기업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고 관련 투자를 지속한다. /최빛나 기자

# 대기업 돈 몰리는데 중기는 자금난… 시장 부익부 빈익빈

대기업 유상증자 5조7943억 달해  
회사채 발행액 1조9923억 감소  
증권사 공모대행 대기업에 쏠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2조 918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다. 최종 경쟁률은 약 2대 1을 기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시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성과 비전에 대해 얼마나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입증한 사례”라며 “우리사주·기존주주 청약률(99.59%)은 내부 구성원의 책임 있는 참여와 기존 주주의 믿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잇단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젬백스앤카엘은 지난해 11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연구개발을 위한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정정 요구가 있었고 납입 일자의 지연이 예상됐다. 이에 회사는 시장에서의 훈련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자금 조달 방안을 변경했다.



금융감독원

증시가 활황세를 이어가지만 자본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대기업에 돈이 몰리면서 중소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도 대기업에 비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선 자금조달의 삼중고를 겪는 셈이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올해 기업의 주식·회사채 공모 발행금액

은 289조957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8938억원(1.0%) 증가했다.

주식 발행 규모는 13조7065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8860억원(55.4%) 늘었다. 증가분 대부분은 유상증자에서 나왔다. 유상증자는 72건, 10조302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3268억원(113.3%) 급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조9000억원), 삼성SDI(1조7000억원), 포스코퓨처엠(1조1000억원) 등 대기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이 영향을 미쳤다. 대기업 유상증자는 5조7943억원(219.7%)에 달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4675억원

(22.6%) 감소했다.

기업공개(IPO)는 위축됐다. 지난해 IPO를 통한 주식 발행액은 3조6763억원(98건)으로 전년 대비 4408억원(10.7%) 줄었다. 코스닥 시장에서 2조 3764억원으로 15.9% 감소한 반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조2999억원으로 0.7% 늘었다.

회사채 발행액은 276조2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9923억원(0.7%) 감소했다. 일반회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은 각각 53조1260억원, 19조4447억원으로 늘었지만, 금융채가 줄며 전체 발행 규모를 끌어내렸다. 일반회사채의 경우 차환 목적 발행 비중이 79.6%로 확대된 반면, 시설·운영자금 목적 비중은 축소됐다.

신용등급별로는 ‘AA’급이상 우량물 비중이 70.7%로 전년보다 확대됐다. 저 신용 등급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우량 신용등급은 대기업이기에 이는 곧바로 회사채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양극화로 이어진다.

신용평가회사 관계자는 “코스피 활황에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투자등급 기업은 자금조달이 원활해졌지만 투기등급 기업은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졌다”면서 “수익률이 높은 저 등급 기업 회사채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일부 있지만 아직 회복세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줄 대행사를 찾지 못한 점도 큰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에 따른 증권사들의 공모 대행이 대기업 중심으로 쏠린 게 사실”이라며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증권사 사정은 당연하겠지만, 그만큼 중소기업은 공모조차 받아줄 곳이 없어 자금조달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단기 자금 조달은 크게 늘었다. CP와 단기사채 발행액은 1663조 3243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조7993억원(27.6%) 증가했다. CP 발행액은 503조1909억원으로 15.6% 늘었고 단기사채는 1160조1333억원으로 33.6% 급증했다.

일반 CP와 일반 단기사채가 각각 13.0%, 33.4% 증가한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ABCP는 11.3% 감소했다.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장기 조달보다 단기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키움증권, 작년 당기순익 1조 첫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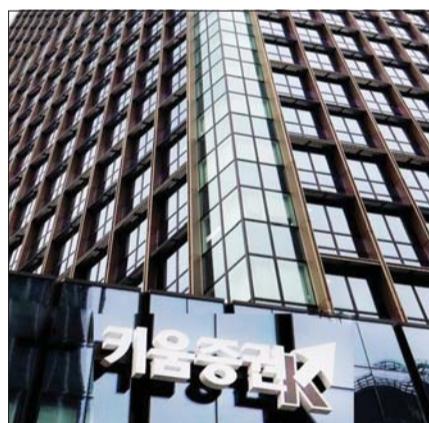
전년비 35.5% 증가한 1조4882억  
위탁매매·기업금융 부문 동반 성장

키움증권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조4882억원으로 전년 대비 35.5%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51.8% 불어난 17조1217억원, 당기순이익은 33.5% 증가한 1조1150억원을 기록했다.

키움증권은 2024년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2021년 이후 3년 만에 ‘1조 클럽’에 복귀했으며, 지난해에도 1조원 대를 유지했다. 더불어 당기순이익이 1조원을 상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키움증권의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4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469억원으로 68.8% 늘었다.

실적 개선을 이끈 것은 위탁매매(브로커리지)와 기업금융(IB) 부문의 동반

성장이다. 키움증권의 지난해 4분기 주식 수수료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58.9% 늘어난 230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미국 증시 활성화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리테일에 강한 키움증권의 경쟁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IB 부문의 성장세도 주목된다. 4분기 IB 수수료 수익은 8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4% 증가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큐리오시스 기업공개(IPO)와 LS전선 유상증자를 비롯해 SK, KT, 한진칼, 우리금융지주, 한화시스템, HL홀딩스, 연합자산관리 등의 회사채(DCM) 발행을 수행했다. 더불어 본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인수합병(M&A) 인수금융을 다수 주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미래에셋 장기성장펀드 순자산 3200억

최근 1년 수익률 172.95%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펀드’의 순자산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펀드 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4일 기준 ‘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펀드’의 순자산은 3200억원이다. 2018년 말 순자산 50억원 수준에서 7년여 만에 32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펀드’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기업 가운데 성장성과 기술력을 갖춘 성장주를 선별해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다. IT 업종을 비롯해 다양한 성장 산업 전반에서 투자 기회를 발굴하며,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일반적인 벤치마크 펀드와 달리 약 30개 내외의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시황 및 개별 기업 여건에 따라 적극적인 편출입을 통해 액티브 운용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4일 기준 ‘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72.95%로, 벤치마크(코스피) 대비 57.46%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장기 성과 측면에서도 최근 3년 수익률은 169.70%, 5년 수익률은 132.33%로 모두 벤치마크를 상회했다.

/허정윤 기자

## 증권선물위, 회계부정·부실감사시 퇴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발표  
5년간 국내 상장사 임원 취업 불가

앞으로 고의로 회계 부정을 지시한 임원과 실질 지시자는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 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회계 투명성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고의로 회계부정을 주도·지

시한 임원뿐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이를 지시한 업무집행지시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해임·면직 권고와 과징금 부과는 물론,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상장사는 해당 인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 이미 재임 중인 경우 즉시 해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해임을 거부한 상장사와 제한 대상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 투입 시간을 현저히 줄인 감사인은 심사·감리 대상에 우선 선정된다. 부실감사가 확인될 경우 정부가 감사인을 교체한다. 부실

감사를 사실상 용인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정감사와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회계부정 여부를 들여다본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정제외점수뿐 아니라 상장사 감사제한 등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가 새로 도입된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도 정상화된다. 자산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는 2026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100% 적용하고,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와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사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 5000억원 미만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부분적용을 유지하고, 자산 200억원 미만 기업은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허정윤 기자

## 카카오페이증권 예탁자산 10조 넘었다

1년 새 155% ↑… 신규 자금 유입 커

카카오페이증권의 예탁자산이 지난 1월 기준 10조원을 돌파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리테일 사업 기반이 본격적인 규모 단계에 진입했다며 회사의 예탁자산을 4일 밝혔다.

예탁자산은 국내외 주식 평가금액과 원화·외화 예수금, 펀드 자산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증권사의 리테일 사업 규모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예탁자산을 주요 성과지표(KPI)로 설정하고 비즈니스 기초 체계 으로 관리해 왔다.

지난해 1월 일평균 예탁자산은 4조원

수준이었으나 1년 만에 10조원을 넘어 전년 동월 대비 155% 증가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시장 가격 상승보다는 신규 자금 유입이 중심이 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주식 평가금액 증가분 중 신규 자금 유입에 해당하는 순매수 비중은 85%에 달했다.

자산 구성도 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예탁자산 비중은 ▲국내주식 ▲해외주식 ▲예수금 ▲펀드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주식 비중이 비슷한 가운데, 최근에는 국내주식 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흐름이 관측된다.

/허정윤 기자

# 무보, K-콘텐츠 금융지원 확대 문화보증·할인으로 수출 가속

작년 146개사에 1858억 규모 보증  
문화산업보증 도입, 17개사 지원  
콘진원 추천기업 보증료 20% 할인  
엑스포 47개사 무역보험·보증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K-콘텐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문화산업 수출 지원에 속도를 낸다.

무보는 4일 올해 K-콘텐츠 기업 두 곳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작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영화·드라마·게임 등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146개사에 총 1858억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출연금을 기반으로 지원 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무보는 지난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전담팀을 신설하고, 음반·영화·드라마·게임 등 문화상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화 상품인 '문화산업보증'을 도입했다. 해당 보증을 통해 지원받은 K-콘텐츠 기업 17개사의 연간 수출 규모는 총 4200만 달러로, 무보의 보증 공급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수출 확대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국내 게임 제작사 소울게임즈 관계자는 "지난해 자사의 모바일 게임이 중국 라이선스를 획득해 중국내 서비스와 마케팅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다"며 "무보의 금융지원 덕분에 자금 부담을 한층 덜게 되었고, 향후 신작 게임 개발에도 지원 자금을 요긴하게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K-POP 음반·굿즈 수출기업인 코마스코퍼레이션 관계자도 "세계적인 K-컬처 열풍으로 수출 오더가 급증했으나, 담보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면서 "최근 무보의 지원으로 수출용 K-POP 음반과 아이돌 굿즈를 적시에 확보해 늘어나는 수요에 빨리 대응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무보는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콘진원 추천 K-콘텐츠 기업에 보증료를 20%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K-콘텐츠 엑스포 참가기업 47개사에 콘텐츠 수출에 특화된 무역보험·보증을 제공해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지원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최근 K?POP, K-드라마 등 K-컬처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례 없는 기회"라며 "문화산업 지원이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확대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 수출기업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한전, ADB 전력교육 국제입찰 수주

〈아시아개발은행〉

프랑스 EDF 등 9개국 11개기관 경쟁  
SCQS 891점 기록해 최종 선정

한국전력은 인재개발원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는 파키스탄 전력분야 인력양성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지난 3일 ADB와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파키스탄 청정 및 지속 가능 에너지 투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력분야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입찰에는 프랑스 EDF, 이탈리아 CESI 계열 교육기관 등 9개국 11개 전력 전문 교육기관이 참여했다.

ADB의 자격 기반 종합심사(SCQS) 결과, 한전은 기준점수(750점)를 크게 웃도는 891점을 기록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기술력과 교육 수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제 경쟁입찰에서 유럽 주요 전력기업 계열 기관을 제친 성과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취임 이후 "회사의 어려운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비용만 집행하던 조직들도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으로 변모해야 한다"라는 경영방침을 강조해왔다. 한전은 이번 수주가 해당 방침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교육은 오는 4월 12일부터 9월까지 파키스탄 전력분야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한전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이론 교육과 함께 한림해상풍력, HVDC 변환소, 배전스테이션 등 국내 전력 인프라 현장 견학도 병행될 예정이다.

한전 인재개발원은 2003년 필리핀을 시작으로 해외 발전·송배전 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한 교육을 수행해 왔다. 2024년까지 총 41개국, 1428명의 글로벌 전력 인재를 양성했으며, 2025년에는 ADB 등과 협력해 인도네시아·스리랑카·방글라데시 대상 교육도 진행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폴리텍대학서 기술 배워 인생 전환

'삶을 바꾸는 기술교육' 결실  
올해 졸업생 9769명 현장 투입

미용실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던 두 청년이 한국폴리텍대학에서 기술교육을 통해 대기업과 공직에 나란히 진출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4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와 실습생으로 함께 근무하던 원솔(29) 씨와 최세종(27) 씨는 진로 고민 끝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인공지능(AI)전자과 2년제 학위과정에 함께 입학했다.

비전공자였던 원 씨는 성실한 학업 태도로 정보처리기능사, 산업안전산업 기사 등을 취득했고, 지역인재 9급 공무

원(방송·통신 직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최 씨는 학생회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LS전선, 코오롱, 한화이엔탈 등에 합격했고, 현재 LS전선에서 근무 중이다. 두 사람은 "학교에서 배움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라며 "한국폴리텍대학에서의 경험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됐다"라고 말했다.

기술교육의 성과는 중장년층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10여 년간 환경안전관리 분야에서 일해온 이동호(39) 씨는 경력 전환을 결심하고 춘천캠퍼스 산업설비과에 입학했다. 그는 2년 만에 에너지 관리기능장을 비롯해 공조냉동기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총 9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현재 삼양식품 원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전경.  
/세종=한용수 기자

## 정책·공기업

## 농식품부, 'K-푸드 대사'로 해외홍보 강화

권역별 전략품목으로 시장 다변화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이 시장 개척을 위한 '권역별 맞춤형 전략'의 구체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K-푸드 수출기획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권역별 전략품목 선정 ▲K-푸드 대사 선정·운영 계획 ▲부처별 K-푸드 수출지원 계획 등 3개 안건을 중심으로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권역별 전략품목 안건의 경우, 수출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수출 동향과 현지 수요, 품목 경쟁력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3개 내외 전략품목이 제시됐다. 예로, 미국

김치, 중국 이너뷰티·단감, 일본 참외, 중동·아세안 할랄식품, 유럽 비건식품 등이다.

회의에서는 해외 소비자 대상 홍보 강화를 위한 'K-푸드 대사' 선정·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K-푸드 대사는 수출 거점 재외공관과 수출기업 주천,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선발되며, 주요 권역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과 콘텐츠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K-푸드 수출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 방안을 공유했다. 외교부는 공공외교 연계 홍보를,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바우처와 식품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농협, 설 맞이 선물세트 최대 50% 할인

국산 농축수산물 등 선물세트 선봬

농협경제지주가 설 명절을 맞아 16일 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설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4일 농협에 따르면 이번 할인행사는 ▲국산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인기 가공식품·생활용품 등 디채로운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특히 실속형 상품부터 프리미엄상품까지 가격대를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농협은 행사카드 및 간편결제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3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결제금액에 따라 최대 250만 원의 농촌사랑상품권을 증정해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인 구매혜택을 강화했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이



농협경제지주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설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엄선한 선물세트를 고객께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농협은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국산 농축수산물 판매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항해 선박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지원

해수부, 선원기금 투입해 보급비 지원

LTE급 수준의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국제항로를 오가는 선박 내 초고속 인터넷 도입을 지원한다. 그간 대부분의 선박은 정치궤도 위성을 활용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선원들이 사전 전송, 동영상 시청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선원기금'을 통해 저궤도 위성 인터넷 보급 지원을 위한 기념행사를 오는 5일 부산 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과학기술통신부에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단말기 적합성 평가 등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건의하는 등 선내 저궤도 위성 인터넷 도입을 준비해 왔다.

과기부는 주파수 분배표 개정, 기술 기준 마련과 해외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원웹의 국경 간 공급을 승인해 저궤도 위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저궤도 위성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 기존 대비 50배 이상 빠른 육상의

LTE급 수준의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념행사에는 김성범 해수부장관 직무대행과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 이승우 선원기금재단 이사장, 해운협회 및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노·사·정이 함께 이뤄낸 성과를 축하할 예정이다.

선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지원사업은 국제필수선박과 국제지정선박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선원기금을 통해 이달부터 척당 매월

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는 선원기금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김성범 해수부장관 직무대행은 "선내 초고속 인터넷 도입을 통해 장기간 선박에서 생활해야 하는 선원들의 고립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선원이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건강창업의 모든 것!



Since 1996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햄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주)햇터  
(주)햇터방송\_브레인TV  
(주)햇터라이프\_햇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 부산형 RISE 1차 성과공유... “교육·산업·정주 있는 구조혁신”

부산형 라이즈 동행포럼 개최  
21개 대학 122개 과제 본격 추진  
1341억 투입 대학·산업연계 확대  
기업 수요 반영해 연 2.5만명 양성  
2년차 부울경 협력으로 초광역 대응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는 부산형 라이즈(RISE)의 1차년도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새로운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2026 부산형 라이즈(RISE) 동행포럼’을 4일부터 이틀간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형 라이즈(RISE)는 대학과 지역산업 등이 긴밀히 연계된 대학 특성화 추진을 목표로, 지난해 5월부터 21개 대학이 122개 과제에 1341억 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됐다.

이번 포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현영 중앙라이즈위원회 위원장, 최재원 부산라이즈위원회 공동위원장(부산대 총장)을 비롯한 지역대학 총장, 기업대표, 지역혁신기관장 및 대학생 서포터스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첫째 날 개막행사는 성과 보고, 사례

발표, 지·산·학 대담, 넥스트 라이즈(N-EXTRISE) 비전 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대학별 1차 년도 라이즈 성과 발표 ▲지역혁신기관별 연계·협력사업 설명회 ▲부산라이즈 분과위원회 회의가 이어지며, 부대·연계 행사로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생들이 모여 부산이라는 주제로 게임·웹툰·관광·디자인 콘텐츠를 제작·발표하는 부산 콘텐츠 경진대회(동서대 주

관)도 진행된다.

시는 지산학 협력을 핵심 현안으로 추진해 온 만큼 라이즈 시행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단순한 사업 성과를 넘어 교육·산업·정주가 연결되는 구조혁신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현장과 강의실의 경계를 허물고 기업 수요 기반의 라이즈 인재를 연간 2만5000여명 양성했고, 특히 기장 반도체 소부장단지 내 개소한 필드캠퍼스는 교육·산업·고용·정주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된 전국 최초의 혁신모델로 선보였다. 더불어 지역대학들이 2125개 기업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개발·공동연구 등 다방면에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특화 비자 도입(150명),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등 정주기반 강화로 외국인 유학생 2만2000명 시대를 열었고, 전국 유일의 3년 연속 글로벌대학 선정으로 지역 혁신역량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부산형 라이즈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반으로 올해는 정부의 핵심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초광역 라이즈(RISE) 정책’에 선제 대응

한다는 계획이다.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대학 연합형 공유대학을 확대하고 대학별 역할 분담과 특성화에 집중한다. 부산형 라이즈는 ▲연구중심형 ▲교육중심형 ▲직업평생교육중심형으로 역할을 분담해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정부 공모가 예상되는 ‘초광역 라이즈 과제’는 부울경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부울경 라이즈센터 간 업무협약을 맺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월 중 초광역 라이즈대학협의체를 발족해 본격 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2년 차인 올해는 지난해 축적해 온 기반 위에서 각자의 시도와 성과가 보다 넓게 연결되고 깊어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부산의 대학이 고유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자율적 혁신을 추진하되, 필요할 때는 서로의 역량을 연결·확장하는 유연한 협력에도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 지역 이모저모

### 경북교육청

#### 영천에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경북교육청은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늘어 2020년 5128명에서 지난해에는 6560명이 됐다. 이들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은 기관·사업별로 분산돼 학부모와 학생이 필요로 서비스를 찾아 면 곳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다. 교육청이 추진하는 특수교육원은 영천의 옛 청경초등학교에 조성돼 203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은 지상 4층, 총면적 4974㎡ 규모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

### 부산도시공사

#### 지역업체 공공구매 980억 배정

부산도시공사가 지역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해 2026년 연간 공공구매계획을 확정했다. 공사 발표에 따르면 올해 총 구매 예정 규모는 약 1250억원인데, 이 가운데 77%인 약 960억원을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투입한다. 법정 의무 비율 50%를 27%p 웃도는 수치다. 특히 부산에 있는 업체에는 전체 구매액의 78%에 해당하는 약 980억원을 할당했다. 지난해 지역 업체 구매액 430억원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공사는 지역 업체 구매 비중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공공구매 실적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역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 포항상공회의소

#### 지역 수출기업 FTA 맞춤 지원

포항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북동부FTA 통상진흥센터는 산업통상부와 경북도, 포항시의 지원을 받아 2026년 불확실한 대외 통상 환경 속에서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FTA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수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중점으로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OK FTA 컨설팅과 기업별 특화 FTA 맞춤형 컨설팅, 상주 관세사의 기업별 1대1 상담,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제3자 확인 컨설팅 등으로 구성됐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부산·울산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산업부, 기회발전특구 5차 지정  
20여개 기업 8조6000억 투자  
부산 강서 데이터센터·R&D 신설

부산과 울산에 약 8조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투자가 추진된다. 정부가 부산·울산 지역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변경하면서 지역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 투자 유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부산에서는 데이터센터와 연구개발(R&D)센터 투자가 예정된 강서구 일대에 37만1000평 규모의 특구 1곳이 새로 지정됐다. 울산은 조선·자동차부품

관련 기업 투자가 계획된 동구와 북구에 총 22만4000평 규모의 특구 2곳이 신규 지정됐으며, 기존에 지정돼 있던 3개 특구는 추가 투자 유치에 따라 지정면적 24만2000평이 확대됐다.

이번 지정·변경으로 부산·울산 기회발전특구에는 20여개 기업이 약 8조 6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지정이 가능하지만, 외국인투자가 포함될 경우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울산은 기존 특구에 외국인투자 면적이 포함되면서 이번 지정·변경을 통해 총 173만6000평으로 면적 상한을 넘어선 첫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리얼미터가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만 18세 이상 1203명을 대상으로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경남 “행정통합 최종 결정 주민투표”

여론조사서 75.7% 주민투표 선호  
통합시기 조기보다 단계 추진 우세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가늠할 여론 조사에서 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결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여론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를 정비한 뒤 통합을 완성해야 한다는 시·도민의 신중론이 반영된 수치다.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 75.7%가 주민 투표를 가장 바람직한 결정 방식으로 꼽았다. 지방의회 의결 지지는 12.7%

에 머물렀다. 통합 시기에 대해서는 완성도를 중시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6월 지방선거 때 조기 통합을 선호한 비율은 30.1%였고, 2028년 또는 2030년 이후 단계적 추진을 지지한 응답이 53.1%로 집계됐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를 정비한 뒤 통합을 완성해야 한다는 시·도민의 신중론이 반영된 수치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울산, 2027 국가예산 4조 확보 목표

### 광역철도 등 신규사업 추진

울산시는 2027년 국가 예산 4조원 확보를 목표로 광역철도 건설 등 대형 신규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는 3일 오후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7년도 국가 예산 확보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내년도 국비 확보 전략과 핵심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2027년 국가 예산 목표액은 보통교부세 1조원과 국비 3조원을 합친 4조원이다. 올해 확보액보다 2592억원(6.9%) 늘어난 규모다. 시는 지난해 국

비 2조 7754억원과 보통교부세 9654억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3조 7408억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지역 경제 난관을 돌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앙정부 정책과 맞물린 신규 사업 발굴과 지역 현안 해결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주요 신규 사업은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RISE) 기술 개발, 4국3특 과학 기술 혁신 지원 사업, 지역 성장 기금 조성, 반구천 세계유산 체험·체류형 문화경관 조성 사업 등이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 경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 확대

### 사업 참여 홍보·프로그램 설명회

경북도는 지역 해양수산 분야 중소 기업을 지원하는 2026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 참여 홍보와 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위해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는 사업수행기관인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주관하며,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울진과 영덕, 포항, 경산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지역 해양수산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투자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과 참여 방법, 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은 경북 지역 해양수산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품 개발과 마케팅,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 등

14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해양수산 관련 기업의 성장을 돋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 해양수산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오며 일자리 창출 3천907명, 연평균 매출 8.5퍼센트 증가, 신규 창업기업 45개사 발굴 등의 성과를 거뒀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 경주시

#### 설 연휴 종합안정대책 가동

경주시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설 연휴 종합안정대책’을 마련하고,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각종 생활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경주시는 연휴 기간 행정안전국을 중심으로 12개 반, 하루 평균 37명씩 총 185명의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투입해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 고물가에 지갑 닫는 소비자… 유통업계 ‘베이커리’ 승부수

## SPC 파리바게뜨·삼립

고단백·저당 등 건강빵 제품 확대

## 신세계푸드

케이크·완제빵 등 생산라인 확보

## CU 프리미엄·가성비 투트랙 전략

외식 한 끼 가격이 부담스러워진 소비자들이 빵으로 눈을 돌리면서 식품·유통업계가 베이커리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고물가와 간편식 트렌드가 확산함에 따라 베이커리가 한 끼를 대체하는 식사이자 가성비 디저트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춰 식품업계는 건강·식사빵 카테고리를 키우고 있으며, 편의점 업계는 ‘디저트 전문 채널’로의 진화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베이커리 업계는 최근 식사빵을 진열대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샌드위치용



CU에서 모델이 베이크하우스405 소금빵을 소개하고 있다. /BGF리테일



모델들이 바른목장 더블크림빅슈 2종을 소개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식빵뿐 아니라 곡물 깜빠뉴, 치아바타, 포카치아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빵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SPC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2월 저속 노화 트렌드에 맞춰 건강빵 브랜드 ‘파란라벨’을 론칭한 이후 고단백·저당·고식이섬유 제품군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파란라벨은 론칭 후 11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2026만 개를 돌파하며 건강빵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SPC삼립도 건강빵 브랜드 ‘프로젝트 H’ 라인업을 확대 중이다. 지난해 5월 고단백·저당빵 7종을 선보인 데 이어 식사빵과 디저트 제품을 후속 출시하며 카테고리를 넓혔다.

CJ푸드빌의 뚜레쥬르는 건강빵 브랜드 ‘SLOW TLJ’를 통해 고단백 현미식빵 등 영양 강화 제품을 선보였으며, 향후에도 관련 신제품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식사빵 인기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보다는 ‘비용 대비 만족도’를 중시하는 소비 심리 변화와 맞닿아 있다. 외식 한 끼

가격으로 빵과 음료를 구매할 수 있고, 대기나 조리 시간이 필요 없어 시간 효율성이 높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한다. 업계에서는 쌀 소비 감소와 간편식 일상화 흐름 속에서 식사빵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전국 6개 직영 공장을 기반으로 베이커리 시장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성수 공장은 고품질 베이커리와 디저트류, 오산 공장은 피자·케이크·샌드위치, 천안 공장은 냉동생지·케이크·완제빵 제조에 각각 특화된 생산라인을 갖췄다.

이마트 내에서 운영 중인 ‘블랑제리’와 ‘E베이커리’를 포함해 전국 120여 개 매장에서 가성비 제품을 선보이는 한편, 스타벅스를 비롯한 카페 채널에 베이커리 제품을 공급하며 채널별 맞춤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이마트 베이커리 케이크 판매량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창고형 할인 매장인 트레이더스 베이커리의 케이크

판매량은 51% 늘었다.

냉동 샌드위치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 합리적인 가격과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식사 대용 수요가 늘면서, 신세계푸드의 냉동 샌드위치 매출은 해마다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는 향후 B2B 채널을 중심으로 신규 판매처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편의점 업계는 과거 ‘편의점 빵=저가 빵’이라는 인식을 벗고, 맛과 완성도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펼치고 있다.

CU는 프리미엄과 가성비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프리미엄 라인에서는 자체 베이커리 브랜드 ‘베이크하우스405’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제17대 제과제빵 명장 이석원 명장과 협업해 제품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가성비 측은 지난해 11월 론칭한 자체 베이커리 브랜드 ‘올드제과’가 맡는다. 단팥빵·완두양금빵·소보로빵 등 대중적인 제품을 개당 1500원에 선보이며 소비자

저변을 넓히고 있다.

실제로 CU의 빵 매출은 2023년 28.3%, 2024년 33.0%, 2025년 23.1% 증가하며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CU에서만 판매하는 차별화 빵 카테고리 매출은 1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했다. 베이크하우스 405종은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기록했으며, 올드제과 시리즈는 누적 35만 개 이상 판매됐다.

GS25는 IP 협업을 통한 차별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일환인 베이크하우스 ‘플레이브’와 협업한 빵 5종은 출시 열흘 만에 55만 개가 판매됐다.

세븐일레븐은 일본 여행 필수 디저트로 꼽히는 ‘더블크림빅슈’를 재해석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디저트 맛집’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전용 슈 반죽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 완성도 제고에 공을 들였고, ‘생초코파이’와 ‘두바이 쫀득쿠기’를 중심으로 한 냉장 디저트 매출(올해 1~26일)은 전년 대비 3.5배 성장했다.

이마트24는 말차를 전면에 내세워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말차 관련 상품 누계 매출은 전년 대비 78% 증가했으며, 말차 테마 상품을 총 16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베이커리는 식사 대용과 디저트 수요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카테고리”라며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 편의점 모두 건강·프리미엄·차별화를 키워드로 베이커리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관련 매출 성장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건강빵의 새로운 기준

파란라벨 : PARAN LABEL

파리바게뜨 건강빵 브랜드 ‘파란라벨’ /SPC

## 설 맞이 행사

### 롯데마트, 4일간 ‘통큰데이’… 활대게 반값

설 앞두고 소비자 부담 완화 초점  
제수용품 등 전체 카테고리 할인

롯데마트가 2월 정례 할인 행사인 ‘통큰데이’를 통해 설 명절 물가 잡기에 나선다. 롯데마트는 5일부터 오는 8일까지 4일간 2월 ‘통큰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통큰데이’는 롯데마트와 슈퍼의 통합 시그니처 프로모션으로, 지난 1월 첫 행사 당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0% 증가하고 신규 고객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집객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이번 2월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수용품부터 인기 먹거리, 생활필수품까지 전 카테고리에 걸쳐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명절 대표 상품인 ‘소 LA 갈비 (1kg)’를 행사 카드 결제 시 2만9980원에 선보인다. 이는 최근 2년 내 최저가 이자 지난해 명절 행사 가격보다 16%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롯데마트는 이를 위해 3개월 전부터 물량을 확보해 총 140톤을 준비했다.

지난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활대게’도 앵콜 행사를 통해 반값에 내

세운다. 러시아 선박 사전 계약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수율 70% 내외의 우수한 원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이외에도 한우 등심, 치킨, 탕수육 등 인기 먹거리를 최대 반값에 할인하며, 제수용 황태포와 계란 등 필수 식재료도 초특가로 내놓는다.

가공식품과 생필품 혜택도 풍성하다. 7일 하루 동안 봉지라면 전 품목 2+1 행사를 진행하며, 만두와 햇반은 1+1 혜택을 제공한다. 귀성길 필수품인 차량용품과 주방용품도 반값 또는 1+1 기획으로 준비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 컬리, ‘그랜드 뷰티 컬리 페스타’ 돌입

6000여개 뷰티상품 최대 90% 할인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2026년 새해 첫 대규모 뷰티 축제인 ‘그랜드 뷰티 컬리 페스타’를 개최하고 설 명절 고객 잡기에 나선다.

컬리는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스킨케어, 메이크업, 바디용품 등 총

6000여개 뷰티 상품을 최대 90% 할인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수요를 겨냥한 럭셔리 라인업이 대거 포함됐다. 조 말론 런던, 바비 브라운, 산타마리아노넬라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역대급 혜택도 마련했다.

행사 첫 일주일간은 10만원 이상 구매 시 25%, 6만원 이상 구매 시 15% 할인되는 선착순 쿠폰 2종을 발급한다.

또한 매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타임 특가’가 열리며, 12일 하루 동안은 스킨수티컬즈, 아르마니 뷰티 등 인기 브랜드 샘플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샘플마켓’도 운영된다.

/손종욱 기자

행사 첫 일주일간은 10만원 이상 구매 시 25%, 6만원 이상 구매 시 15% 할인되는 선착순 쿠폰 2종을 발급한다.

또한 매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타임 특가’가 열리며, 12일 하루 동안은 스킨수티컬즈, 아르마니 뷰티 등 인기 브랜드 샘플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샘플마켓’도 운영된다.

### 롯데百, ‘루미나리에’ 쇼핑·체험 이벤트

‘소망, 빛으로 물들다’ 주제… 7일부터

롯데백화점이 이달 7일부터 3월 8일 까지 열리는 ‘2026 롯데 루미나리에’ 기간에 맞춰 롯데타운 잠실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소망, 빛으로 물들다(Wish Shines On)’를 주제로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지난해보다 행사 규모를 3배가량 확대하고 백화점, 마트, 호텔 등 잠실 단지 내 계열사가 대거 동참해 즐길 거리를 대폭 늘렸다.

롯데백화점은 행사 기간 100% 당첨 이벤트를 통해 실질적인 쇼핑 혜택을 제

공한다. 매주 주말(금~일) 루미나리에 광장 키오스크에서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 백화점 패션·스포츠 금액 할인권, 마트 할인권, 롯데월드 어드벤처 및 아쿠아리움 할인권 등 롯데 계열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증정한다.

시즌 맞이 콘텐츠도 강화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벨린타인데이와 신학기를 겨냥해 ‘두바이 디저트 페스티벌(18~28일)’, ‘르봉마리아주 벨린타인 팝업’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뷰티 기프트 페어’와 신학기 가방 할인 행사를 통해 구매 금액대별 상품권 증정 및 추가 할인 쿠폰 혜택을 제공하며 고객 빨길을 잡을 예정이다.

/손종욱 기자

###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선물세트 3종 출시

국내 대표 종합주류기업 하이트진로는 설 명절을 맞아 프리미엄 중류식 소주 브랜드 ‘일품진로’ 선물세트 3종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각 제품과 어울리는 전용잔을 함께 구성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둘렀다.

일품진로 설 선물세트 3종은 전국 대

구매할 수 있다. /손종욱 기자

일품진로 선물세트 3종. (왼쪽부터) 일품진로 25, 일품진로 오크 25, 일품진로 오크 43. /하이트진로

형마트 등 주요 유통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손종욱 기자

# 국내 바이오, 글로벌 백신 전초기지로… 포스트 팬데믹 대응

삼바로직스, CEPI와 '100일 미션' 팬데믹 발생시 100일내 백신 준비 SK바사, 머크와 3000만달러 계약 에볼라 백신 개발·상업생산 등 위탁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압도적인 제조 역량과 협력 전략으로 글로벌 백신 주권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순수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백신 제조 시설 네트워크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계약은 CEPI의 '100일 미션' 일환으로 성사됐고 이번 파트너십에는 최대 2000만 달러(약 288억원)의 초기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CEPI 100일 미션의 목표는 팬데믹 발생 시 100일 이내 백신 초기 승인과 대규모 제조 준비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EP I가 개발 지원 중인 백신을 생산하는 '우선 생산 기업'으로 지정된다. 향후 팬데믹 발생 시 CEPI 요청에 따라 최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왼쪽부터)와 존 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백신 제조 시설 네트워크 파트너십'을 기념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5000만 회분의 백신 및 10억 회분의 완제의약품(DP) 백신으로 전환 가능할 원료의약품(DS)을 생산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한 백신은 한국에 우선 공급될 수도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야생형 H5 인플루엔자' 발병 상황을 가정, 항원 개발에서 백신 제조 및 공급까지 전 주기에서 공정 신속성과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초격차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갖춰 아시아·태평양 지역 백신 생산 허브 입지를 다진다는 복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1년에도 정부 기관과 협력해 국내 최초로 모더나 mRNA 백신을 생산, 출하하는 등 팬데믹에 적극 대응해 왔다. 당시 글로벌 빅파마 모더나와 완제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 체결 5개월 만에 백신을 공급했다.

존 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향

후 팬데믹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한국의 백신 주권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력과 제조 전문성을 바탕으로 팬데믹 대응 역량을 지속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독감 및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기초 백신뿐 아니라 차세대 백신 영역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달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CEPI가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 '자이르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총 3000만 달러 규모의 펀딩 계약을 맺음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자금 지원을 받게 됐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머크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제조공정 개선, 임상시험용 백신 개발, 상업 생산 등을 위탁했다. 힐레만연구소가 에볼라 백신 임상을 주도하는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개량된 원액 제조, 연계된 완제의약품 개발을 담당한다.

자체 백신 생산시설인 안동 엘 하우스와 CDMO 자회사 IDT바이오로지카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제조공정

고도화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의료 및 물류 인프라가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특수성을 반영해 백신 수율, 열안정성 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은 "백신은 공중 보건을 위한 공공재 성격이 강한 분야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수익성 확보 또한 필수적"이라며 "폐렴구균 백신 등 프리미엄 백신 시장 공략 성과를 미래 백신 연구개발과 시설에 재투자하고 있고 국제 기구와 글로벌 공조를 병행해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모두 극대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C녹십자와 유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콜라라' 백신에 대해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경구용 콜라라 백신 유비콜을 개발했고, GC녹십자는 유비콜 완제(DP) 공정에 대한 위탁생산(CMO)를 맡기로 한 바 있다.

GC녹십자 측은 "세계보건기구(WHO)나 범미보건기구(PHAO) 등에 백신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글로벌 보건 인프라 핵심 죽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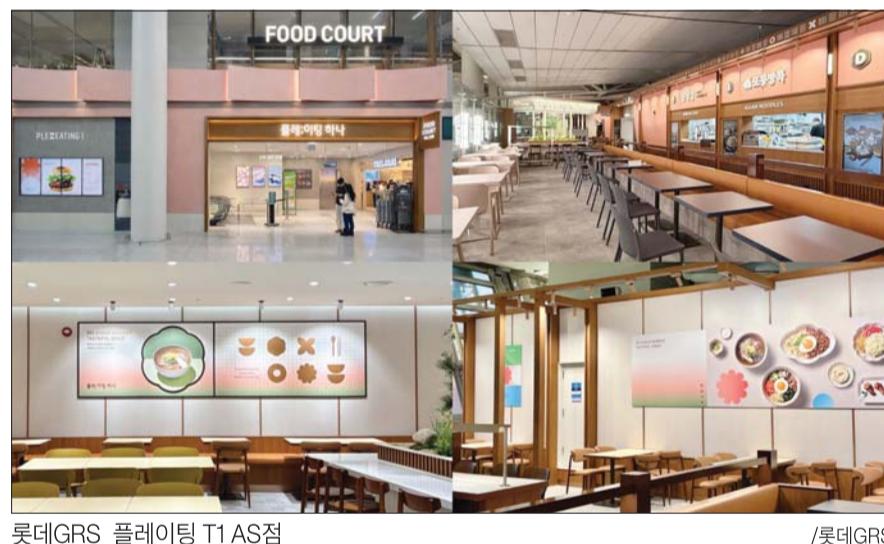
## 롯데GRS, 인천공항 푸드코트 라인업 완성

'플레이팅 T1 A/S점' 신규 오픈 푸드코트 중 가장 많은 인원 수용

롯데GRS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에 푸드코트 사업장 '플레이팅 T1 A/S점'을 신규 오픈했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 내 푸드코트 5개 지점(총 1534석)을 모두 완성하며 플레이팅 라인업을 구축했다.

플레이팅 T1 A/S점은 총 474석 규모로 운영돼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하는 푸드코트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면적은 약 434평의 넓은 규모를 자랑한다. '한국의 선이 꽂쳐럼 피어나는 공간'라는 콘셉트 하에 꽂과 닮은 한국의 선과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한복의 유려한 곡선과 한국 전통 돌담의 질감, 기와의 구조를 공간 곳곳에 담아 자연스럽고 우아한 한국의 미를 표현했다.

플레이팅 T1 A/S점은 롯데GRS가 개발한 자체 브랜드 ▲나드리회관 ▲경



롯데GRS 플레이팅 T1 AS점

성분식 ▲온탕집 ▲또롱방콕의 총 4개 브랜드를 운영하며 한식·분식·아시안 푸드 등을 선보인다. 대표 K-푸드인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양지곰탕'부터 인기 분식 메뉴 '뚝배기 떡볶이', '토핑 김밥'과 폭넓은 취향에 맞춘 아시안 식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롯데GRS는 2019년 플레이팅 인천공

항T1점을 시작으로 2024년 7월 플레이팅 T2 중앙서편점, 지난해 12월에는 인천공항 탑승동점, 2026년 1월 인천공항 T2 서편점에 이어 이번 T1 A/S점까지 인천공항 내 계획된 푸드코트 5개 점포를 모두 오픈하며 컨세션 사업 및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K-오가노이드' 구축 전략 세미나 열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차그룹과 협력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3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CBC) 국제회의실에서 '오가노이드 기술 상용화 및 해외 진출 현황, 차그룹과의 협력 및 K-Cell & K-오가노이드 구축 전략'을 주제로 초청 런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K-Cell 뱅크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오가노이드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차세대 'K-오가노이드' 구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의 주제 발표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유종만 대표와 세포배양식품 전문기업인 씨워드의 금준호 대표, 차바이오그룹 차광렬 글로벌연구소장이 순서대로 발표자로 나서 기술적 완성도와 사업적 비전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유종만 대표는 오가노이드 기술의 상용화 로드맵과 글로벌 시장 진출 현황을 발표하며, 차그룹과의 실질적인 협력 포인트와 K-오가노이드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은 금준호 대표는 오가노이드 기술의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와 전략적 확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끝으로 차바이오그룹 차광렬 글로벌연구소장의 K-Cell 뱅크를 활용한 글로벌 재생의료 및 항노화 치료 사업화 전략 강연이 이어졌다.

/이세경 기자

## 광동제약-한국MSD, 백신 파트너십 계약

'캡박시브' 마케팅·유통 공동 진행

광동제약은 한국MSD의 성인 전용 21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캡박시브(Capvaxive)'에 대한 국내 코프로모션(Co-promotion)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2026년 1분기 캡박시브 출시 시점부터 국내 마케팅 및 유통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앞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가다실·가다실'의 코프로모션을 통해 공고한 협력 관계를 이어온 양사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백신 시장 내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확대하게 됐다.

캡박시브는 성인에서 발생하는 침습

성 폐렴구균 질환(IPD) 및 폐렴구균 폐렴 예방을 위해 새롭게 설계된 폐렴구균 백신으로, 성인 폐렴구균성 질환의 최신 역학적 특성에 기반해 미충족 수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8개의 고유 혈청형을 포함하여, 현재 국내 허가된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중 가장 넓은 혈청형 범위를 제공한다.

식품의약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캡박시브는 18세 이상 성인에서 폐렴구균 혈청형(3, 6A, 7F, 8, 9N, 10A, 11A, 12F, 15A, 15B, 15C, 16F, 17F, 19A, 20A, 22F, 23A, 23B, 24F, 31, 33F, 35B)에 의한 침습적 질환 및 폐렴구균 폐렴의 예방에 사용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해외서 훨훨 나는 에이피알, 작년 매출 1.5조

사상 최대 실적… 영업이익률 24%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이 연간 매출 1조 5000억원대에 진입하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세 자릿수의 성장세로 사세 확장의 보폭을 넓혔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거둔 성과가 기업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

에이피알은 2025년 연결기준 연간 매출 1조 5273억원, 영업이익 3654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11%, 영업이익은 198% 증가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것. 영업이익률은 24%로 수익성까지 입증했다.

이번 호실적은 분기별로 살펴봐도 대 최고 수준이다.

연결기준 2025년 4분기에만 5476억



에이피알의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큐브'는 미국 얼타뷰티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해 있다.

/에이피알

원의 매출을 기록해 분기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이 중 해외 매출은 47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3% 커지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7%로 커졌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3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 급증했다.

/이정하 기자

gift

# 설날 마중

\* \* \*

**선물 사전예약**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산지직송으로 **능수한우암소세트** 제품과  
**프리미엄 솔트에이징** 육류, **프리미엄 과일**까지  
명절전물세트의 모든 것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미트스테이션**  
Meat Station

**Meatstation.co.kr**  
Tel : 02-2279-8400



벤처협-서울디지텍高, 지역 산업인재 육성 '맞손'  
벤처기업협회는 서울디지텍고등학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등학교 육성 및 교육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왼쪽부터) 서울디지텍고등학교 박선갑 교장, 벤처기업협회 장구성 혁신인재본부장이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두산그룹, '바보의 나눔'에 성금 10억 전달  
두산그룹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성금 10억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왼쪽)과 바보의 나눔 이사장 구요비 주교가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 가운데 일부는 가족을 돌보면서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영 케어리)'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데 쓰인다. /두산그룹



한우자조금, 싱가포르서 한우 가치·경쟁력 알려  
한우자조금은 지난달 30일 현지 마리나베이샌즈호텔에서 '2026 싱가포르 한우·한돈 수출 론칭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현지 유통·외식 산업 관계자와 언론 등을 대상으로 한우의 다원적 가치와 품질 경쟁력을 알리는 데 초점을 뒀다. '한우 정형 시연 및 설명 프로그램'에서는 벽제갈비 강성호·김용호 조리장이 부위별 특성과 정교한 정형 기술을 시연해 보였다. /한우자조금



NH농협은행, '원리원칙 10계명 실천' 결의대회  
NH농협은행은 지난 3일 이재홍 준법감시인 및 본부부서 전 부서장 등 임직원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리원칙에 기반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변함없는 기준! 원리원칙 10계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원리원칙 10계명에는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 근무시간 사직행위 금지, 업무공간 내 올바른 호칭 사용 등 금융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윤리규범이 담겨 있다. /농협은행



우리금융, 설 맞아 '복 꾸러미' 포장 봉사활동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설 명절을 맞아 '우리금융 복(福) 꾸러미' 포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포장 행사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 두 번째)과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이사를 비롯해 우리금융그룹 소속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우리금융

## 갤럭시로 개막식 촬영하고 AI 통역으로 22개 언어 소통

삼성전자, 밀라노 동계올림픽서 대회 전반 모바일 혁신 기술 선봬  
삼성전자 모니터로 비디오 판독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공식 파트너인 삼성전자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모바일 혁신 기술을 통해 선수, 팬, 커뮤니티를 더욱 가깝게 연결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울트라를 활용한 개막식 생중계 ▲갤럭시 AI 기반 실시간 통역 소통 지원 ▲삼성전자 모니터를 활용한 경기 판독 환경 구축 ▲갤럭시 충전 스테이션 운영 ▲선수·주요 인사·파트너들의 소통 공간 '삼성 하우스' 운영 등 이번 대회 전반에 걸쳐 모바일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올림픽방송서비스(OBS)와 협력해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식 현장을 '갤럭시 S25 울트라'로 촬영하고,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생중계된다.

개막식은 오는 6일 밀라노의 산 시로(San Siro) 스타디움에서 90여 개국



삼성전자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 밀라노의 역사적 건축물인 팔라초 세르벨로니에서 운영하는 삼성 하우스의 모습. /삼성전자

3500여 명의 선수와 7만 5000명 이상의 관중이 함께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전 기간 동안 혁신적인 모바일 기술을 통해 현장에서 대회 운영 전반을 뒷받침한다.

이번 대회의 자원봉사자 중 약 850 여명에게는 갤럭시 AI 기반 '통역'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Z 플립7, 갤럭시 Z 플립7 FE 등이 제공돼 선수와 관계자, 방문객 간의 22개 언어 소통을 지원한다.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네트워크

한다.

삼성 하우스는 초청받은 선수·주요 인사·파트너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들이 만나 교류하고 관계를 다질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30년간의 올림픽 기술 협업 ▲역대 올림픽 애디션·성화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빅토리 프로필' 등을 전시하고 ▲경기 생중계 관람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삼성 하우스는 금일 공식 개관해 대회 폐막일인 오는 22일까지 운영되고 이어 패럴림픽 기간인 3월 6일부터 15일까지 다시 문을 연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모바일마케팅센터 최승은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올림픽의 모든 순간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사람 중심의 올림픽을 열어 가고자 한다"며 "대회를 경험하는 방식이 진화함에 따라 모바일 기술은 선수와 팬, 커뮤니티를 더 가깝게 연결하고 경기의 현장감과 감동, 사람들이 공감하며 즐길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 밀라노의 역사적 건축물인 팔라초 세르벨로니에서 '삼성 하우스'를 운영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LG AI대학원, 내달 정식 개학

공식 학위 수여기관 전환 전 마지막 학위수여식 진행

지난해 말 교육부 인가 절차를 끝낸 LG AI대학원이 오는 3월 정식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

LG는 지난 3일 서울 마곡 K스퀘어에 위치한 LG AI대학원에서 사내 과정으로 학위 과정을 끝낸 2명의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LG AI대학원이 교육부 공식 인가 석·박사 학위 수여 기관으로 전환되기 전 진행하는 마지막 학위수여식이다.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현업과 학업을 병행하며 AI 역량을 갖춘 변화의 주역으로 거듭난 졸업생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존경과 축하를 보내며, 이제 각자의 현장에서 끊임없는 학습과 실행으로 LG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졸업생인 나영탁 LG전자 AI SW



LG가 3일 서울 마곡에 위치한 LG AI대학원에서 사내 과정 마지막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 /LG

플랫폼개발팀 책임연구원과 신윤호 LG유플러스 서비스AI리서치팀 선임은 공식 인가 대학원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수료했으며, SCI급논문을 게재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나영탁 LG전자 책임연구원은 AI의 영상 인식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연구했다.

신윤호 LG유플러스 선임은 비전언어(VL) 모델이 영상 속 인물의 행동을 인지했을 때, 언어모델(LLM)이 직관적인 설명을 생성해 붙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차현정 기자

## CJ문화재단 '20주년 콘서트 시리즈'

20년간 젊은 창작자 성장 지원  
'드림 투 스테이지'로 관객과 만남

CJ문화재단이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이달 말부터 5월까지 'CJ문화재단 20주년 기념 콘서트 시리즈'를 개최한다.

CJ문화재단은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재현 이사장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2006년 설립돼 CJ가 가장 잘하는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인디 뮤지션 지원사업 '튠업(TUNE UP)', 신인 영화 창작자 지원사업 '스토리업(STORY UP)', 뮤지컬 창작자 지원사업 '스테이지업(STAGE UP)'을 중심으로 젊은 창작자를 발굴·지원해 문화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CJ문화재단은 지난 20년간 창작자의 성장을 지원해 온 여정을 관객과 나누고자 '드림 투 스테이지(DREAM TO STAGE)'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CJ문화재단 20주년 기념 콘서트 시리즈' (이하 콘서트 시리즈)는 창작자와 관객의 첫 만남이 이뤄졌던 CJ아지트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인다. 이번 콘서트 시리즈는 '스테이지업: 뮤지컬 갈라 콘서트', '튠업: 라이브 스테이지', '스토리업: 컬처 토크'로 구성됐다.

콘서트 시리즈 포문을 여는 '스테이지업: 뮤지컬 갈라 콘서트'는 이를 간 진행되며 '스테이지업'을 통해 발굴된 주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25일에는 뮤지컬 '흉련', '판', '풍월주'가, 26일에는 '여신님이 보고계셔', '아랑가', '로빈'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각 작품 대표 넘버와 함께 작품 개발 과정,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토크 결합 형식으로 진행되며 유명 뮤지컬 배우가 히든 게스트로 등장한다.

이어서 3월부터 두 달간 '튠업: 라이브 스테이지'가 진행된다. '튠업'을 빌판으로 성장해 활약 중인 카더가든, 오존, 죠지, 이진아, 흥이삭, 최유리 등 총 12팀의 뮤지션들이 참여한다. '스토리업: 컬처 토크'에서는 영화, 음악, 문화예술 산업 전반의 이슈를 주제로 창작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담이 마련된다. 3월에는 영화감독 변성현, 배우 설경구가, 4월에는 뮤지션 선우정아, 윤종신, 장기하, 정원영이, 5월에는 성신여대 김진각 교수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문체부-콘진원, AI 기반 게임인재 양성

'게임 인재원 8기 교육생'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인공지능 AI 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게임 분야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게임인재원 8기 교육생' 모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게임인재원은 국내 게임 산업에 특화된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기획·프로그래밍·아트 등 전통적인 게임 개발 영역에 더해 AI 기반 게임 제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

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8기 과정에서는 생성형 AI 활용, 데이터 기반 게임 설계, AI NPC 설계 등 혁신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이 확대됐다.

교육 과정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운영하며, 현직 게임 개발자와 AI 전문가들이 직접 멘토로 참여한다. 특히 실제 게임 제작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팀 단위 실습을 진행해 수료 후 즉시 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실무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 인사

◆ 국가보훈부 ◇ 과장급 전보 △국제보훈정책담당관 김슬기

◆ 행정안전부 ◇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김경덕 △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황기연 △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황명석

◆ 한겨레신문사 ◇ 편집인 겸 미디어본부장 권태호

◆ 임현옥(향년 83세)씨 별세, 김갑선씨 남편상, 임일수(그린엔지니어링 대표)·임천수(스포츠조선 총무판매팀 부장)씨 부친상, 박은란·김지선씨 시부상 = 3일 오후 8시32분, 안양 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5일 낮 12시, 장지 충남 공주시 이인면 선영. 031-382-5004

## 부음

# ‘학생부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



지상법의

임시 토크

전국의 고등학교 교실은 지금 ‘기록’이라는 거대한 신기루를 쓰고 있다. 수행평가 철이 되면 학생들은 밤을 새워 탐구 보고서를 급조하고, 교사들은 학생의 개성을 500자라는 제한된 틀에 우겨 넣기 위해 작문 전쟁을 벌인다. 학교생활기록부가 내신의 불리함을 단숨에 뒤집을 마법의 열쇠라는 믿음, 이른바 ‘생기부 만능론’이 공교육 현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된 기록이 과연 대학 문턱을 넘게 해줄 실질적인 무기일까. 입시 데이터와 대학의 평가 메커니즘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결론은 자명하다. 기록은 ‘숫자’라는 보증수표가 있을 때만 가치를 지닌다.

대학 평가 프로세스는 수험생의 기대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효율적이다. 수도권 주요 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 한 명이 검토해야 할 서류는 연간 수천 건에 달한다. 고려대학교 등 주요 대학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서류 평가 기간 중 사정관 1인이 학생 1명의 생기부를 검토하는 데 주어지는 시간

은 고작 10분 내외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사정관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정독 하며 숨겨진 진주를 찾지 않는다. 필자가 분석한 학생사례를 교차 분석한 결과, 대학은 우선 ‘학업 성취도’라는 정량적 지표로 평가 대상을 1차 선별한다. 즉, 성적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한 학생의 화려한 기록은 사정관의 눈에 닿기도 전에 이미 평가 순위에서 밀려난다는 뜻이다.

특히 현재 고1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따른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내신이 5등급제로 완화되며 1등급이 10%까지 확대되자, 등급 변별력이 약해져 생기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쏟아진다. 그러나 이는 대학의 생리를 간과한 해석이다. 1등급이 흔해질 수록 대학은 역설적으로 그 숫자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원점수와 등수가 전교 최상위권인 학생의 세특은 ‘탁월한 탐구력’으로 읽히지만, 등수가 밀린 학생의 화려한 세특은 ‘화려한 포장지’ 혹은 ‘신뢰할 수 없는 과장’으로 치부된다. 즉, 5등급제 체제에서 생기부는 낮은 성적을 가려주는 가면이 아니라, 우수한 성적을 증명하는 검증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내신 1~2등급대의 상위권 학생들에게 생기부는 동점자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는

결정적 한 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3등급 이하의 중하위권 학생들이 부족한 점수를 메우기 위해 기록 관리에 몰두하는 것은 전략적 폐착이다. 교육 당국의 통계는 낮은 성적을 기록으로 뒤집는 역전극이 극히 이례적인 사례임을 보여준다. 성적이 낮은 상태에서 작성된 고난도 탐구 보고서는 입학사정관에게 학생의 역량이 아닌 ‘교사의 미사여구’ 혹은 ‘대필’로 비칠 뿐이다.

결국 대입의 본질은 ‘학업 역량’으로 수렴된다. 생기부는 그 역량을 증명하는 보조 자료이지, 실력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가면이 아니다. “제발 시간 낭비하지 마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입시의 주객을 혼동하지 말라는 뼈아픈 충고다.

대학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아니라, 이미 공부를 잘하고 있음을 숫자로 증명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한다. 성적이 곧 생기부의 ‘독자’를 결정한다는 냉정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기록을 위한 작문 기술이 아니라, 교과서의 원리를 파고드는 치열한 공부다. 기초가 부실한 기록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 숫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역량은 결코 대학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JBS진로전학연구소장

오늘의 운세 2월 5일 (음 12월 1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http://www.fortunetory.com))

48년생 건강을 위해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60년생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세요. 72년생 작은 양보가 나중에 큰 보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84년생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돈독해집니다.

49년생 지출보다는 수입이 앞서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61년생 오랜 고민거리가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다. 73년생 직장에서의 성과가 윗사람의 눈에 띄게 됩니다. 85년생 금전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50년생 무리한 외출은 체력을 떨어뜨리니 집에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62년생 동업자의 의견 조율에 신경 써야 합니다. 74년생 생각지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세요. 86년생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실리를 쟁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1년생 문서상 이득이 있거나 좋은 계약 소식이 들립니다. 63년생 가족들의 지지 덕분에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75년생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87년생 예상치 못한 보너스나 선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52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 자중하세요. 64년생 투자는 미루고 현재의 자산을 지키는 데 주력하세요. 76년생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우선 순위를 정해 움직이세요. 88년생 비밀이 탄로 날 수 있으니 정직하게 대처하세요.

53년생 마음의 평안을 위해 명상이나 종교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65년생 가까운 사람의 조언이 의외의 해결책이 되어줍니다. 77년생 서류 정리를 꼼꼼히 하세요. 실수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89년생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54년생 주변의 칭송을 듣고 명예가 올라가는 날입니다. 66년생 막혔던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며 여유가 생깁니다. 78년생 기발한 아이디어로 팀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90년생 고백을 계획 중이라면 오늘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55년생 소화기 계통 건강에 유의하고 과식은 피하세요. 67년생 믿었던 사람에게서 운함을 느낄 수 있으나 금방 풀립니다. 79년생 욕심을 부리면 가진 것마저 잃을 수 있으니 자제하세요. 91년생 윗사람과의 마찰이 예상되니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56년생 자녀의 일로 신경 쓸 일이 생기나 원만히 해결됩니다. 68년생 새로운 일을 벌이보다는 미루리에 집중하세요. 80년생 대인관계에서 유연함이 필요한 날입니다. 고집을 꺾으세요. 92년생 장거리 여행이나 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7년생 배우는 미음을 가지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69년생 돈보다는 사람을 얻는 데 집중하면 큰 복이 됩니다. 81년생 지출이 늘어나는 날이니 가계부를 꼼꼼히 살피세요. 93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도 실망하지 마세요. 곧 기회가 옵니다.

58년생 오랜 인연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힐링을 암입니다. 70년생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82년생 배우자와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가정에 화목이 깃듭니다. 94년생 솔직한 태도가 오해를 풀고 신뢰를 쌓게 해줍니다.

59년생 부동산이나 금전적인 면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71년생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즐기기에 좋은 날입니다. 83년생 승진이나 포상 등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 기회가 생깁니다. 95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운이 따릅니다.

## 결정이 없으면 실행도 없다… KAI 7개월 공백



기자 수첩

유혜온  
(산업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실행의 시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KF-21 양산이 본격 궤도에 올랐고, LAH·수리온 인도 일정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실행을 총괄할 사장 자리는 7개월 이상 비어 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불안은 인선 지연 그 자체보다 결정이 늦어지면서 리스크가 회사 안에 쌓이는 것이다. 노조가 조기 선임을 요구하며 피켓을 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임금·복지보다 ‘결정권자 부재’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 분위기다.

KAI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는 오너

십 부재가 반복적으로 거론된다. 주인 없는 회사 구조 속에서 정권마다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됐고, 그때마다 생긴 후폭풍이 누적됐다는 얘기다. 한 번의 칼질로 정리될 성격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이번 사장 인선이 더뎌진 배경을 놓고 도 해석이 분분하다. 유력 후보가 부상했다가 흐지부지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인선 자체보다 결정 구조의 불확실성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가 인사 흐름과 방산업계 인선이 맞물려 움직이는 관행 속에서 결정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 고착화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여기엔 KF-21 공동개발을 둘러싼 재정 조정 이슈도 겹쳤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약 1조 6000억 원 수준의 개발비 분담과 완제기 48대 도입을 전제로 공동개발에

참여했으나, 최종적으로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줄이고 기술이전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분담금 감액에 따른 재정 구조 조정은 정부 간 협의와 정부-KAI 간 논의를 통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국면에서 사장직 공석이 장기화된 조직 구조가 안정적인 실행 체계로 비치느냐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KAI 민영화 가능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돌지만, 시기와 방식이 정해진 로드맵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검토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KAI는 이미 ‘결정의 시간’에 들어섰다. 더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부담은 커질 뿐이다.

/dhaledhale@metroseoul.co.kr



## 김상회의四季

희망의 복덕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소원을 품는다. 올해는 좋은 일에 생길 것이라는 희망이다. 새해마다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희망을 품는 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마음가짐이나,命學에서는 우주의 기운이 매년 매달 매일 쉬지 않고 변화하며 새로운 순환 속에서 새로운 복덕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지난 몇 년간 크고 작은 시련을 계속해서 겪어왔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주 팔자학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기운은 영원히 어떤 하나의 상태로만 머물지 않는다. 혹독한 추위가 끝나면 따스한 봄이 오는 것처럼 절망의 기운이 가득할 때일수록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움튼다. 운명은 우리가 어떤 의지를 지니고 끌어당기느냐에 따라 기운의 흐름이 달라진다.

과거의 부정적인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으면 운명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불안과 걱정보다 희망 가득한 마음을 품으면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 丙火와 午火의 기운이 강한 丙午년은 폭발적인 열정과 거침 없이 뻗어나가는 비약적인 성장을 암시한다. 끈기 있게 노력하면 자신이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계획을 시작하기에 유리한 기운이 작용한다. 팔자학은 개개인의 운명을 예측하는 것을 뛰어넘어, 어떻게 하면 개운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새해에 世運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새해 운세의 흐름과 개운의 방법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해인지, 관계를 다듬어야 할 시기인지 내다보고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끊임없이 배우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자신의 운명으로 만들 수 있다. 희망을 품는다는 건 좋은 운세의 흐름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宫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7 4		5 3			
	5			1		4		
							8	
								9
								5
4			1					
	6				3			
							8	
5 4		8 6						7

**걸림형 스도쿠**

걸림형 스도쿠는 153문제로 구성된 스도쿠 퍼즐입니다.

**컬러스도쿠110**

컬러스도쿠는 100문제로 구성된 스도쿠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아이디어의 퍼즐디자인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활인도서

QR코드

7		9 3		6				
				7 9				
	9						3	
								7
1					4 8			
								1
	6 3							
7								
	4 5							
	2							
		4 1			3			

5 4	3	6 8	5 3	5 6	8 5 3	2 4 5	1 5 3	9 8 7 6 5 4 3 2 1
6 2	7 4	9 1 2	7 9 4	8 5 2	6 9 3 7 8 6 5 4	7 6 5 4 3 2 1	9 7 6 5 4 3 2 1	8 7 6 5 4 3 2 1
7 1	8 3	9 2 4	1 5 6 7 8 9 4	2 3 4 5 6 7 8 9 5	3 4 5 6 7 8 9 4 3	4 5 6 7 8 9 5 4 3	5 6 7 8 9 4 3 2 1	6 7 8 9 4 3 2 1
8 7	9 6	1 3 5 6 7 8 9 4	2 1 4 5 6 7 8 9 5	3 2 5 4 6 7 8 9 6	4 3 5 6 7 8 9 5 4	5 4 6 7 8 9 5 4 3	6 5 7 8 9 4 3 2 1	7 6 5 4 3 2 1
9 8	1 7	2 4 6 8 9 5 4 3	3 5 6 7 8 9 4 3 2	4 5 6 7 8 9 4 3 2	5 6 7 8 9 4 3 2 1	6 7 8 9 4 3 2 1	7 6 5 4 3 2 1	8 7 6 5 4 3 2 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 721-9851,		





외식 대신 빵  
식품·유통업계  
베이커리 키운다

L1

국내 제약바이오  
글로벌 백신  
전초기지로

L2



둘로 나누니

빙과 스테디셀러,

비로소 '완성'

40년 세월 갈랐다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해태아이스 '쌍쌍바'

빙과 시장에서 수십 년간 생존한 상품은 손에 꼽힌다.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신제품 교체 주기가 짧은 시장 특성상 10년만 버텨도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해태아이스의 '쌍쌍바'는 1979년 출시 이후 40년 넘게 생산을 이어온 대표적 장수 상품이다.

쌍쌍바의 핵심 경쟁력은 '한 아이스크림을 쪼개서 둘이 나눠 먹는다'는 명확한 구조적 콘셉트에 있다.

#### ◆구조가 곧 마케팅이 된 아이스크림

쌍쌍바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의 제품 포장 안에 2개의 스틱이 꽂힌 아이스크림이 들어 있어 둘이서 나눠 먹는 재미있는 콘셉트 덕분에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출시 당시부터 별도의 설명 없이도 제품 가치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빙과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제품 구조 자체가 소비 상황을 정의한 사례"로 평가한다. 아이스크림이 개인 소비 중심으로 진화 하던 흐름과 달리 쌍쌍바는 공유형 소비를 전제로 한 독자적 포지션을 구축했다.

이 같은 구조는 특히 가격 민감도가 높아졌던 1990년대 초반에 강점으로 작용했다. 당시 쌍쌍바는 100원대 가격으로 판매되며 '하나를 사서 둘이 나눈다'는 체감 가성비를 앞세워 빠르게 확산됐다.

쌍쌍바는 형태 특성상 '동일 가격 대비 양이 많은 아이스크림'으로 여겨졌지만, 과거 실제 용량은 67ml로 메로나·스크류바(75ml) 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다만 2021년 용량을 75ml로 조정하면서 체감 가성비와 실제 수치 간의 괴리를 일부 해소했다. 업계에서는 쌍쌍바의 경쟁력이 절대적인 양보다는 둘이 나누는 구조가 만 들어내는 심리적 만족감에 있었다고 본다.

#### ◆확고한 정체성에 더해지는 변주

쌍쌍바의 기본 맛은 초콜릿이다. 진한 초콜릿 풍미의 맛은 폭넓은 연령층에게 사랑



트렌드 변화 빠른 국내 빙과시장서  
40여년간 인기 이어온 '장수 상품'

쪼개는 행위 자체가 소비 경험으로  
둘이서 나눠먹는 콘셉트로 '차별화'  
진한 초콜릿 풍미·쫀득한 식감까지

1990년 초중반 소비위축과 맞물려  
가성비 앞세운 스테디셀러로 등극

받아왔다.

2019년 '피치베리', 2023년 만우절 기획으로 선보인 '메로나 맛', 2024년 '카라멜 맛' 등이 출시된 바 있으며, 이는 기본 콘셉트는 유지하되 이벤트성 홍장으로 브랜드 신선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재는 2022년부터 출시해 선보인 바닐라맛과 오리지널 초코맛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다.

쌍쌍바는 '어떻게 쪼개느냐'는 행위 자체가 소비 경험의 일부가 된 상품이다. 실제로 가운데를 정확히 나누지 못하면 양쪽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 사이에서 하나의 특징으로 인식돼 왔다.

해태아이스는 이러한 경험 요소를 반영해



▲ '사우디 포기' 2029 동계아시안게임, 카자흐스탄 알마티서 개최  
▲ '박지수·강이슬 포함' 여자농구 대표팀, 월드컵 예선 명단 발표

/사진 뉴시스

▲ '데뷔전' 앞둔 마줄스 농구 대표팀 감독, 12인 명단 발표  
▲ 스노보드 최가온, 3연패 도전 클로이 김의 경쟁자 "포브스"

▲ FIFA 회장 "리 국제 대회 허용해야"…러 "환경", 우크라 "무책임"  
▲ 컬링 믹스더블 김선영-정영석, 동계올림픽 한국 첫 출격

# SAMSUNG



## Galaxy Book6 Pro



AI 노트북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갤럭시 AI 아카데미에서

\*이해를 돋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제품 사양은 국가, 지역, 또는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samsung.com](https://samsung.com)